

定慧社

불기 2546년 여름 | 제25호



송광사 전통강원

自畫像

속세의 모습으로 방황하다 지친 그대 머문 곳이 이곳인가.
괴롭고 괴롭고 괴로워 괴로움을 마치려 주절주절 속세의 모습으로 방황하다 지친
그대 머문 곳이 이곳인가.
네 어머니 생전에 니 곁에서 시름시름 앓다 사지육신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몰골
보다 더 사무친 괴로움에 정작 나선 곳이 있어 머문 곳이 여기 이곳이란 말인가.
서신 한 장 남겨놓고 칠흙같은 밤하늘, 야반도주 하여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 눈
물 훔치며, 뒤도 돌아보도 않고 발길 따라 인연 따라 길을 나선지가 어제인데 당신
아 당신이 당신 너는 지금 여기 머물러 무얼 하고 있는가.

한참을 가다가다 문득 멈춘 자리. 고개를 설레설레
왜 이리도 달려왔는지조차 모르는 사슴처럼.

갓 도망쳐 나와서는, 갓 삭발염의染衣 하여서는 되겠지 '부모여, 형제여 나를 잊어
달라, 제발 나를 잊어 달라' 죄 지은 듯 여겼지만 이제와 생각하면 그 또한 그대 생
각 치우침에 괜실함이 아니던가.

먼 산 바라보고 집을 나설 때는 아득히 보이느니라 '부지런히 가면 되겠지. 부지런
히 가면 되겠지' 하며 굳은 다짐 다하지만, 저 먼 산 꼭대기와 그대 사이 보이지도 않
던 계곡 하며, 가파른 절벽 하며, 때론 뻥뻥 보임에도 저기 멀리로 돌아가야 하는 길
하며...

비가 오면 비 피하려 쉬어가고, 밤이 되면 어두워서 쉬어가고, 산짐승 무서워서 쉬
어가고, 가다가다 지친 몸뚱아리 추스르느라 쉬어가고, 어여가다 어여가다 제 풀에
고꾸라져 쉬어가고, 산 좋고 물 좋아 가도 않고 앓은 자리 걸망 풀어 마냥 쉬어가고.

가게가게 어여가게
쉬덜말고 어여가게
꼭대기서 당신도반
허허결결 배꼽잡고
손짓하니

여보게나 당신이
이 옷染衣일랑 벗고 가진 마소.

定慧社

불기 2546년 여름 | 제25호

- 2 방장스님 법어 | 편집부
- 4 지대방 이야기
 - 치문 | 지륜
 - 心 | 보원
 - 스님이라 불리기 전 | 정문
 - 실수연발 | 보순
 - 무제 | 능인
 - 잘 살아보자 | 정안
 - 삼경일기 | 無名
- 13 詩 치문여름의 바램 | 도갑
- 14 목우단상
 - 마음 | 동오
 - 2년/인연 그리고 | 정달
 - 참회를 받는 이유 | 연진
 - 수마 | 연중
 - 무제 | 목우
 - 생각해봅시다 | 인효
 - 상생죽필문 제3 | 도해
- 23 詩 우주의 탄생 | 편집부
- 24 바람소리 한자락
 - 108염주 | 무인
 - 서쪽에서 온 편지 | 혜일
 - 무제 | 도성
 - 일월(日月) | 해청
- 28 詩 正見3 | 효산
- 29 화보와 강원소식 | 편집부
- 31 학인기고 | 혜광
- 37 경전 한구절 | 편집부
- 38 특별기고 원을 발하다 | 보월
- 40 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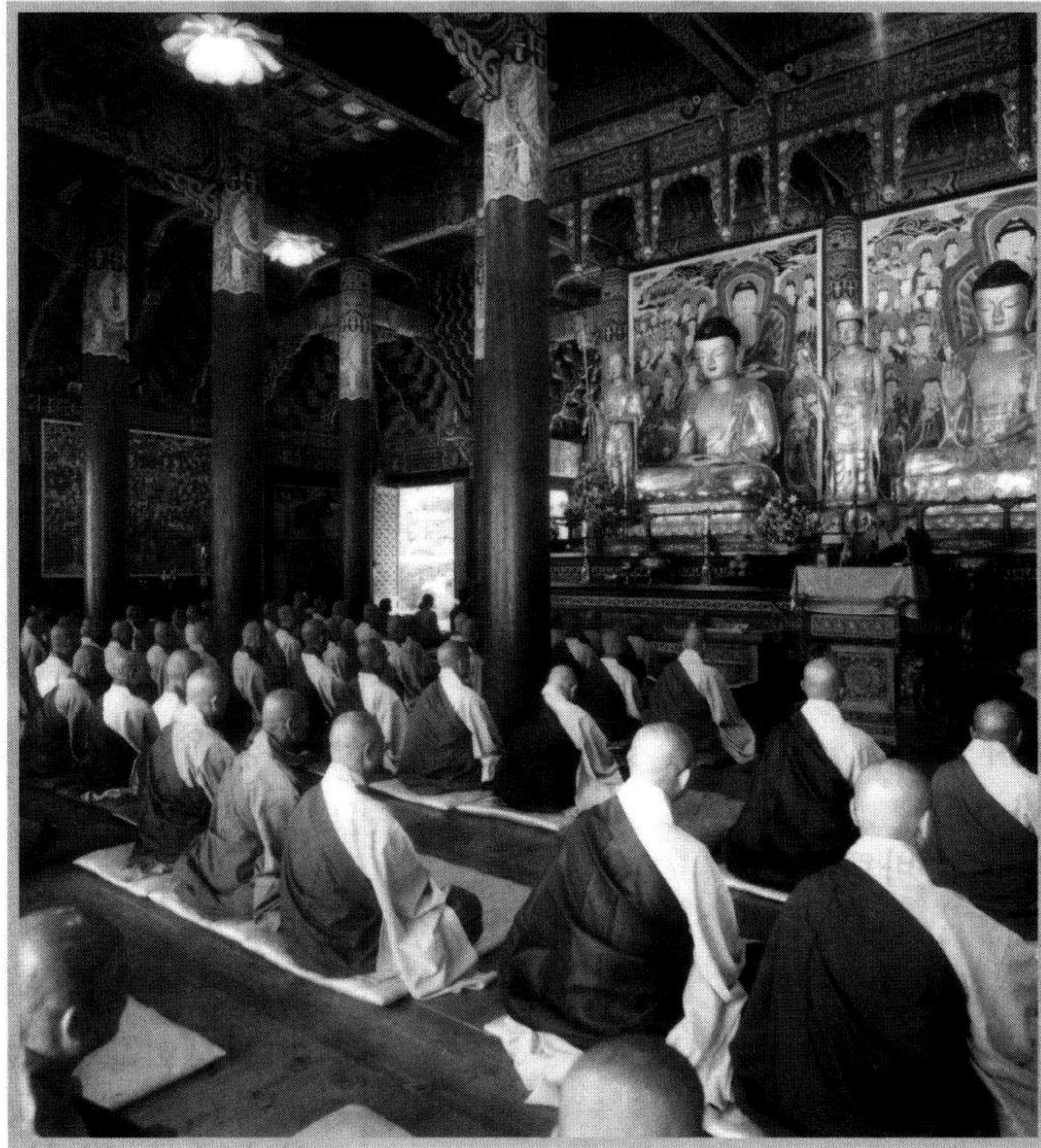
3년 만에 가마솔 걸고
구슬땀 닦아가며 구증구포
작설차를 어른스님 여기저기
주고 나니 그냥 빈 손.

바로 잡습니다.
지난 24호 교수논단 6p 15줄,
'연기법은...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는 '...법계는 머물러 있다'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智雲(講主)
편집인 | 원교(입승)
편집장 | 효산
편집 | 해진, 대정, 인효
사진 | 인효

발행일 | 2546년 8월 1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061)755-5302
인쇄 | 도서출판 부다기획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법어



主人公아 聽我言하라 幾人이 得道空門裏런가

2002년 6월 25일

주인공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까. 주인공아 내말을 들어보시오. 몇 사람이나 공문의 진리를 얻어갔는지.

자 우리가 다들 자부하기를 발심 출가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을 하루 몇 번씩 불러봅니까. 우리는 좋은 여건 속에서 지금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어주는 밥에 뜨신 방에서 또 시원한 방에서 그저 외호의 힘으로 지금 선원이면 선원에서 강원이면 강원, 율원이면 율원에서 나름대로 하루하루 분명하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제대로 알뜰하게 정진하고 있는가? 한번은 호되게 정진해 보겠다는 그런 투철한 생각도 해볼만 합니다.

유명한 황벽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塵勞를 벗어나는 길이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도다. 화두를 간절하게 해 잡고 한바탕 한 번 지어봐라. 차디찬 사무친 기운이 뺏속에 파고

들지 못하면 어떻게 향기로운 매화꽃을 음미할 수 있느냐고 고인들이 그렇게 야운비구나 황벽스님이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공 주인공하는 나는 내가 어떻게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나의 일은 오직 내가 잘 할일이지 아무리 친한 도반이라도 이웃이라도 잘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것 같으면 벌써 하안거도 한달이 지났어요.

우리가 포살이다 범문이다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요. 생사일대사를 요달하기 위해서 생사 생사하지만은 그 생사라는 그 무서운 번뇌를 헤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쉬는 것만 같지 못해요. 한번 쉬는 것만 같지 못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쉬고 쉬는 공부를 할 따름입니다. 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말인지 모릅니다.

많은 도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자고 수행하고 있지만 그 도반이 나의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켜주는 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도 그 도반이 공부가 잘 되게끔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대중이 다 내 공부를 해주게 되니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범문은 이만큼에서 마치고…….

지금 밝은 6월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1년 전에 6.25요. 오늘 한창 서울은 분주할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창 더울 땀니다. ……(중략)…… 우리가 평소에는 큰소리를 치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는 우왕좌왕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사회는 6.25만큼이나 한 달 동안 와! 와! 하는 소리로 들끓고 있잖아요. 자, 스님네가 와! 하는 소리에 휘말리면 되나 말이에요. 오늘은 단좌(端坐)해서 한 번 멋진 텔레파시를 보내봐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크나 큰 보탬이지 어디 와! 와!에 휘말려서 수행자라 할 수 있나 이말 이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몇몇 스님네는 꾸준하게 수행력을 여실히 보였어요. 한 스님은 해인사를 끝내 수호하시고 ……(중략)…… 동산 노스님은 스님네가 갈 데가 없어서 범어사를 찾아오는데 그저 하룻밤만 지나면 결제중이라도 객스님이 네댓 명씩 모여옵니다. 그래서 나도 부족한 생각이었죠. 노장님 방에 가서, “스님, 스님 이 사람 다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하고 여쭙니 “자 이 사람아, 자네 밥에 내 밥에 물 한 그릇 더 부세.”하시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스님 죄송합니다.”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대자비심. 중이 절을 버리고 어디를 가란 말이나. 그러한 옛 어른스님들의 그 은덕으로 정진해왔고 그래서 오늘 이 인연으로 함께 공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은혜로움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과거 51년 전 바로 오늘에는 참 지긋 지긋했어요. 하지만 부처님 덕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면 부처님의 덕이 항상 이런 것인가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일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그 어려운 때를 회광(廻光)하는 나로서도 오늘날 스님네들을 볼 때 정말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도 스님들의 훌륭한 법력으로 잠시나마 그렇게 도세(度世)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치문(縑門)

지륜知輪 / 치문

매옴~땀 들려오는 이 소리. 이 매미 울음소리는 절집을 찾아오는 보살들의 과다노출을 알리는 소리이자 여기 정혜사 큰방 내의 부처들이 흔들림을 알리는 소리이다.

이렇게 여름이 찾아오면서 샤워를 자주하게 되는데 얼마 전 수각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어? 여기 어린애 장난자국 같은 게 있어?”

도반 목우스님이 물었다.

나는 어이없어 하며 대답했다.

“예... 이거 맹장수술 자국 이예요 --;; ”

“앵? 이게? 맹장수술 치고는 굉장히 큰데?”

여기서 저는 충격을 받고서 이 맹장을 Ep어낸 행자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그 때 2002년 2월 13일 새벽 2시 40분...

잘 자다가 몸을 돌려 누웠을 때 배속이 완전히 뒤집히는 느낌과 함께 엄청난 고통이 따라왔다.

“으~~아아~!”

나의 비명소리에 갠 도반 행자님들이 왜 그러냐고...

“배가...배가...반장님 예불 좀 빠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꼭 쉬십시오.”

도반 행자님들의 부축을 받으며 객실로 가 몸을 누였다.

누울 때에도 어찌나 아프던지...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어떻게 잠을 잤는지는 모르겠다.

얼마나 지났을까? 탁! 하는 소리와 밝은 빛이 커

지면서 도반 행자님들이 죽을 가지고 나타났다. 고마운 마음으로 반긴 받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행자님들의 진찰 결과 맹장으로 결론이 나서 죽은 커녕 물도 못 마시게 했다.

아픔과 고프으로 배를 움켜쥔 채 얼마나 지났을까? 나의 사숙이자 원주소임을 맡고 계시던 석우스님께서 슬그머니 들어오셨다.

“맹장이라며? 괜찮아?”

“아니요.. 곧 열반에 들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있다가 조 기사님 오시면 병원 가서 수술하자.”

“수술요???”

“그래, 맹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지.”

예전에 힘이 들 때에는 그냥 팍!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건강하기만 하던 내가 실제로 수술이라니...

조 기사님의 운전으로 원주스님과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원주스님 “사중과의 상의 끝에 K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했다.”

K병원의 그 악명을 들어 알고 있던 나는...

“스님 저를 차라리 송광사에 내버려 주십시오 K병원 만큼은..”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단다. 다른 병원으로 가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힘들데..” “안돼~~스님 저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S병원으로 아니면 여기 고속도로에 내버려 주세요” “그럼 K병원이 그렇게 돌팔이라면 가서 진찰을 받고 진찰이 틀리면 S병원으로 가자, 그럼 됐지?”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된 나는 수공을 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진단을 받으니 바로 나의 증상을 알고 있고 맹장이라고 정확하게 말을 했다. 나도 의사의 모습과 행동 말하는 것을 보니 어찌나 믿음직스런지 K병원의 악명을 순간 잊었다.

바로 수술을 하고서 깨어보니 간호사실에서 산소를 마시고 있었다.

병실로 옮기고 주위를 둘러보니 옆 침대에서 링거를 받고 있는 한 처사님이 보였다. 처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다. ‘똑똑’ 소리에 깨어보니 밥이 나왔다. 그런데 하나만 들고 들어오더니 옆 침대 처사님한테만 주고 나가는 거였다. 나는 붙잡았다.

“나는 밥 안줘요?”

그 공양 돌리는 보살님이 손가락으로 나의 링거 부분을 가리켰다.

“아~~나~~!!! 금~~식~~!!!”.....

게다가 밑에 작은 글씨도 적혀있었다.

‘물도 먹으면 안 됨!’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나는 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쯤 지났을까? 찾집 보살님과 종무소 영이 처사님이 찾아 오셨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고 다시 TV를 보며 누워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원주시자의 소임성격이 붙어서 인지 전화를 바로 받았다.

“네-”

“저기 채경남 환자 있습니까?”

채경남...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보았는데... 나의 침대에 달린 표를 보니 채경남이란 이름이 적혀있었다.

‘아~~내가 그 이름으로 입원을 했지.’

“네 제가 채경남이군요, 누구세요?”

“나 별찬데... 내일 거기 갈게 알았지?”

“예? 아 예... 그러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날 별좌스님이 오행자님과 같이 나타났다.

별좌스님 갑자기 왈,

“심심한데 커피숍이나 가자.”

‘이틀 간 쭈뼛 굶는데다가 물도 못 마시는 나에게 커피숍을 가자고?’

나의 생각을 읽으셨는지, 별좌스님 왈,

“환자복 때문에? 링거 때문에? 괜찮아 안 될게 뭐가 있어”

그렇게해서 병원 앞의 카페에 가서 앉아 이야기 나누다가 들어오니... 헉! 일조스님...한 손에 피자를 들고 나타나신 것이었다. ‘금--식 TT’ 글자가 눈앞을 지나가며 나를 슬픔에 젖게 했다. 할 수 없이 그 피자는 저녁에 옆의 처사님 아들에게 보시했다.

다음날 의사선생님이 진찰하러 왔다.

“음-수술자리가 아프고 그런 건 없죠?”

“네...그런데 밥은 언제부터 줘요?”

“아마 내일부터 나올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은...”

물은 많이씩 드시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 목을 축일 정도만 드십시오.”

오후에 나는 수술하고 돌봐주는 의사 선생님이 고마워서 찾아뵈려고 보니... 이런 정말 신선한 충격을 먹었다. 나를 수술해준 의사는 치질과 전문 의사였던 것이다.

‘이래서 나는 K병원에 오기 싫었던 거야! 전에 무량 행자님도 K병원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진단은 소아과의사가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걸 ‘중이염’ 이라고 하고, 혜전 행자님의 손가락 수술사건도..’ 나는 스스로를 달랬다.

‘그래도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남은 게 다행이지.’ 하며...

그 뒤로 찾아오는 스님들께 이런 어이없는 대체 의사 수술사건을 이야기 하며 시간을 보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이 몸에 있는 하나의 상처가 이렇게 깊은 사연을 담고서 추억 거리가 되어 나에게 즐거움을 주어서 감사한 생각도 든다.

心

보원普願 / 치문

혼자 생활하는 것도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 날 보는 눈빛에도 많이 익숙해졌다.
멀리서 법고 소리가 들린다. 힘들어서 안거 때는 쉬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다시 법고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행자 때 읽었던 수심결을 다시 한 번 읽는다.
읽다가 덮고.. 읽다가 덮고..
무엇 이길래 이리도 마음을 때리는지..
때려서 죽는 것이 번뇌라면 좋겠다.
견성을 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는데..
오늘도 다생의 업식에 이끌려 피곤하면 즐겁게 되고 배불러도 먹고 싶으면 먹는다.
어김없이 2시만 되면 졸음이 쏟아진다.
혼자 생활하니
졸음이 왜 이리도
참기 힘든지, 닥쳐오는 수면욕에 용을 써보지만 이내
무너지고 마는..
자리에 누운 지
몇 분이나 흘렀는가... 잠이 들려한다.
예전에 만화를 보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얼른 교과서로 바꾸었던 것처럼 발소리에 놀라 자리에 앉아 펜을 집는 척한다.
충혈 된 눈을 손으로 가리고 책에 열중하는 척...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있나보다.'
누군지 궁금해 살며시 눈을 위로 떠보니 "야! 여기가 도서관이었구나."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키 동당스님이시다.
일어나 반배하고 서 있으니 답진 않느냐고 물으신다.
괜찮다고 했다.

“여기가 어딘지 몰랐는데 도서관이었군.” 하시며 이리저리 둘러보시더니
“부처님 덕에 이렇게 좋은데서 공부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해, 부처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어! 알겠어?” 하시며 행하니 가신다.
한참이나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부끄러움... 고마움
유난히도 년도를 잘 외우시는 스님의 법문.
예전에 이런 법문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1900년, 효봉스님께서 말이야 나한테 목숨 걸고 공부하라고 했던 말이야”

.....
난 오히려 목숨을 부지하려고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도들과 잡담이나 하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닌가?
가만히 웃어본다.
참으로 우스운 나란 놈을 보며...

근데 왜 이리
눈물이 날까.....

스님이라 불리기 전후에 있었던 일

정문正文 / 치문

21일간의 행자교육을 마치고 나니 벚꽃이 봄비에 거의 떨어졌다.

중이 된 건지 신병교육을 마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분으로 화엄사 봉고차에 몸을 기댔다.

“휴게소입니다. 내리세요. 점식 먹고 출발 하겠습니까.”라는 소리에 눈을 뜨니 이제 중이 된 모양이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눈길과 마주치곤 했다.

아침 수계식, 연비할 때 눈가에 눈물이 고였던 나의 모습, 지금은 배고픔에 허덕이며 점심 공양하는 나의 모습, 나의 참 모습은 어디였던 말인가? 새벽 열차에 도반스님과 몸을 기대고 있자니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대전 관음사에서 자고 다음날 부리나케 서둘러서 태고사에 도착했다.

“스님! 정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환하게 함박웃음으로 답해주셨다.

“야! 행자교육가니 어땠데?” “스님만 뵈다 다른 스님들만 보니 스님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점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보지 말아라.”

“예 스님”

한참 이런 저런 담소가 이어졌다. “나가봐!”

이렇게 말씀하실 땐 속세에서 느끼는 정이라는 것이 뚝 떨어진다. 문을 닫고 나와 한숨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저 앞쪽 산을 내려다보았다. 골짜기 골짜기마다 끼어있는 조그마한 절들. 역시 골짜기 속에서 살면서 출가하여 중이 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특히 은사스님의 제자가 된 것이 더 없는 영광이며 자랑하고 싶은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 새벽 예불을 일찍 마치고 스님의 방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이날은 강원 방부가 끝나는 바로 전 날이었다. 스님의 허벅지가 터지든지 아니면 내 손가락이 꺾이든지 있는 힘을 다해 꺾꺾 누르며 “스님 저 강원에 방부 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 니 땀에 불사를 두 곳으로 나눠서 벌이고 있는데...”

“일만하다보니 공부도 놓치고 점점 잡부가 되는 것 같아요.”

“중이 공부하러 머리 깎았지, 일만해서는 안되지, 상근기는 일하면서 공부가 되는데, 쫓쫓”

“발심을 그렇게 했다면 강원에 가야지, 야! 빨리 짐 챙겨서 송광사로 가! 방부 빨리 들어.”

송광사에 도착하니 낮선 풍경은 아닌데 뵈는 스님마다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왔다. 21일간의 행자교육의 영향은 간 큰 나를 정말로 콩알로 만들어 놓았다. 그 이후로 심장소리가 왜 이리 크게 들리는지... 4월 28일 강원 생활이 시작되었고 지대방의 왁자지껄한 휴식시간에도 꿀 먹은 단지처럼 지냈다. 그렇게 지내길 보름도 안 되어서 봄산철의 7일간의 방학이 돌아왔다.

그간의 생활은 수행자로서보다 갓 시집은 새색시의 시집살이 하는 마음이라 표현함이 옳을 것이다.

야! 전반기 7일간의 방학은 정말 정말 빠르고 빠르구나.

송광사 일주문을 정면으로 두 번째로 보면서 큰 숨 한 번 들이셨다. 산철 방학소임이 화엄전 시자였다.

화엄전에 사시공양 후 신문 갖다드리고 저녁에 불 지펴 드리는 일 등등...

저녁 4시 20분 소임시간이 다가왔다. 계곡을 건너 돌계단을 오르며 또 한 번 큰 숨을 한 번 들이켰다. 동당스님 시중드는 일이 쉽지 않다는 말과, 잘못하면 강원 생활 내내 소위 짝한다는 말은 전 소임자에게 들었기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화엄전 문을 열고 들어섰다.

“스님 소임 보러 왔습니다.” “너 불 때봤나?” “예, 스님.”

저름 10cm정도의 나무토막을 아궁이에 열댓 개

정도 넣고 불을 지폈다.
그때 “야 술에 물 넣었어?” “아직 안 넣었습니다.”

“왜 이리 상식이 없어. 응? 물 없는 술에 불 먼저 지피면 술이 구멍이 안 나겠어? 그래가지고는 아무데도 가 살 수 없어!” 하시며 술을 새로 사 오신 내력을 작지 않는 훈계조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마른 장작이라 한 번 불이 붙자 방바닥에 온기도 초가 닿기 전에 금방 다 탈 것만 같았다. 아궁이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 놓고 닫아버렸다.

조금 있다. “이리와 봐, 너는 코 막고 숨을 쉴 수 있어? 응?”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불이 붙어 있기를 바래? 응?”

“네 코를 한 번 막아 볼까? 숨 쉴 수 있냐?” (코 막으면 입으로 숨을 쉴 수 있는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은 전 소임자에게 자세히 들은 바였다.

다음날 저녁 4시 20분 동당스님 방에 불 지피러 화엄전에 올라가니 다른 스님과 담소를 나누시는데 화제가 어제 저녁 해프닝을 말씀하시고 계셨다. 말씀 끝에 “요즘 중들은 상식이 없어.”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상식이라... 상한 밥은 없는 것이 낫지, 틀린 말씀은 아니지.’라고 돌려 생각했다.

“스님! 소임 보러 왔습니다.” “그래, 물 좀 떠나라.” “어디서 떠 옵니까?”

“차 다려 마실 물이야, 물 뜰 땐 바가지로 받아서 넣어.”

나의 반문을 못 들으신 것인지 아니면 좋은 생수를 떠오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바가지’하는 말에 승보전 좌측에 있는 생수가 생각이 났다. 스텐 찜통을 들고 승보전 좌측에 있는 생수를 15분이 되도록 바가지로 받아 찜통에 넣었다. 킁킁대며 화엄전에 올라서니..

“야, 물을 어디서 떠왔어 모르면 물어봐야지.” “물어 봤는데요.”

“야, 니 중 되길 잘했어! 속가에 있었으면 마누라 속 터져 죽이겠어. 응.”

칭찬인지 꾸짖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등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 땀범벅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새벽 간경 후 목이 말라 승보전 좌측 생수를 마시며 며칠 전의 해프닝을 떠올렸다. 물맛이 어떤 생수보다 좋아 이곳까지 와서 떠다 드렸는데.....

한 모금 더 마시고 법성료에 올라서자

사천왕문 쪽에서 염주를 돌리시며 이리저리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이었다.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새벽 간경 후 생수 마시러 갈 때마다 동당스님을 뵈 수 있었다.

‘야, 노스님께서도 아직도 쉬지 않고 매일 정진하시는 것이 역시 머리 깎은 스님이시구나!’ 생각했다.



실수연발

보순菩淳 / 치문

저녁 공양시간

치문반 스님이 일본자에 밥을 받고 다음 국을 떠서 일본자에 다시 담으려는 순간 약간 기울여 받는다. 밥이 모두 국통으로 풍덩! 서둘러 건져보았지만 이미 국전더기와 각개전투 중인 밥알을 재 소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국통은 다음 스님께로 넘겨지고 국을 뜨시던 사집반 스님은 국밥이 특식으로 나온 줄 아셨다나.

저녁공사시간

밥을 국통에 빠뜨린 실수는 중참회감이고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본인이 더 놀랐을 거라며 경책을 내리지 않겠다는 윗반스님의 말에 우리는 콧김이 폭발하고 몸이 흔들리는 웃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저녁 예불시간

천수경을 마치고 입정에 들어 풀벌레도 숨죽인 시간... 쿵쿵하고 법당 가득 울리는 소리, 거센 바람에 떠밀려 닫히는 문소리였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치문반 스님의 방귀소리였다. 살짝 도둑방귀를 끼려고 한 쪽 엉덩이를 들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내공이 실렸는지 예상치 못한 큰 소리에 본인도 깜짝 놀랐단다.

공사시간에 사교반장스님께서 내리신 방귀주의보 발효 이후 우리는 법당에서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뽕!”

저녁 공사시간

공양시간에 위의 없는 행동으로 참회를 지시 받아 참회발표 순서가 되었다. 모범 답안은 “○○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녁 공양시간에 위의 없는 행동으로 습의장스님으로부터 참회를 지시 받았습니다. 이에 삼경이후 지장전에서 한 시간 참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치문반 스님은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녁 공양시간에 습의장스님으로부터 이유 없는 행동으로 참회를 지시 받았습니다. 이에 삼경이후 지장전에서 한 시간 참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했다나.....



무제 (無題)

능인能忍 / 치문

“와야! 피자대!”

이 소리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로 듣는 소리겠지만 우리 강원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다. 그곳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송광사 치문반의 지대방이다.

우리 치문반 스님들의 평균연령은 비교적 젊은 편이어서 삼십대 중반이다. 젊은 편이라고 하지만 요즘 출가하시는 스님들의 연령이 높아진 탓이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다.

세속에서라면 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한둘씩 낳고 직장에서는 과장이나 부장쯤은 바라보아야 할 나이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강원 치문반이라는 환경 속에서는 평균나이 열 살이 되는 것이다.

나 또한 예외는 결코 아니다. 간식거리를 보면, (이곳에선 차담이라고 한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안면에 희색이 만연해지는 것이 여간 흥분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얼마 전 도반들과 사교 강사스님을 뵙고 우리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님께서는 웃으시면서 “걱정할 일이 아니네예. 좋은 일이에요, 그만큼 잡생각 안하고 순박해진다는 뜻이 라요.”하신다.

물론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생사를 초월하고 사생의 자부가 되어서 삼계의 모든 중생을 고해의 바다에서 구원하겠다고 출가해 놓고는 현실은 피자 한 봉지를 몰래 사물함에 감춰놓고 아껴 먹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나다. 나는 전부터 위장이 약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을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주로 먹으며 인스턴트 음식은 먹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과자를 먹는 것이다. 속병이 나서가 아니다. 과자를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한데도 말이다. 차담을 먹으면 속병 생긴다고 과자를 먹지 말라는 윗반 스님들의 말씀이 귀에 맴돌고 후회할 모습이 뻔히 보이면서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간다. 강원이라는 구속된 환경과 치문반이라는 압박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생활, 그리고 도반과의 업식의 부딪힘에 의한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의 습. 이 속에서 살려고 하니 차담이나 과자가 단순한 맛이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닌 나의 것, 나의 본능을 채우려는 탐욕의 발로인 것이다. 물론 나의 경우이긴 하나 도반들도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

방학 나가거나 외출을 해서는 과자를 절대 먹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하다. 출가 전에 금연을 결심한 적이 있었고 절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자는 잘 끊기지가 않는다. 어찌면 니코틴 중독보다도 나의 식탐은 더욱 강한 중독으로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지금도 지대방에 가면 차담이 있다. 난 오늘도 갈등할 것이다. 먹을까? 말까? 항시 패자의 위치에 서긴 하지만 치문반이 끝나기 전에 꼭 승자가 되리라 다짐한다.

잘 살아보자

정안淨眼 / 치문

어제까지도 내 귀에 들리지 않던 매미 소리가 들린다. 하안커가 이제 한 달 반 남아있다. 행자복을 벗고 행자 교육원을 마치면서 처음 승복을 입었을 때 그 뿌듯하고 내 자신이 대견했던 그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가 부모님을 향하여 삼배를 올리며 왜 그리 눈물은 나오는지 참아도 참아도 눈물이 고이는 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만 속으로 속으로 수 없이 하고 열심히 제대로 살아보자고 그리고 막연한 불법의 진리를 몸소 체득해 보자고 나옹스님의 시처럼 티 없이 맑게 걸림 없이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리라고 맹세하고 발원했던 그때. 어느덧 행자 교육원을 마치고 송광사 강원에 입방한지 어느덧 삼개월 가까이 되어간다.

마음속에 울긋은 심지 하나 세우고 출가하였는데 지금의 내 생활은 솔직히 나를 이해해 주는 도반스님 외에 혹여나 속인(보살님, 거사님)이 알까 부끄럽다. 아직은 속가의 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위안도 해보지만 옆의 도반에게도 알게 모르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 참 미안할 때도 있다. 벌써 여러 번 지적도 받고 참회도 받아 지장전에서 밤 9시 이후에 종종 지장보살님께 잘못도 빌곤 했다. 나 외에도 몇 명 짝헌(?) 도반스님들과 함께 우리는 종종 지장전을 지킨다는 '독수리 오형제로 불린다. 우리 송광사 강원 치문반은 나도 그렇고 옆의 도반도 그렇고 자의반 타의반 고의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실수와 질책과 참회를 반복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단순한 외형으로 보면 게으르고 절제심이 없고 시주물만 축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 저마다 자기의 본래의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중과 화합하고 하심하며 조용히 자기 질서를 지켜가는 모습이 있다.

아직은 서로서로 어색하다. 힘들어하는 도반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대중생활에 잘 적응하는 스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디뎠다. 스스로의 마음 찾아가는 이 길이 도반과의 경쟁과 살아남기의 생존게임처럼 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모두 부처되기 위한 길이기에 매일 지심귀명례하지 않는가!

삼경일기三更日記

이름 모를 스님의 투고

밤늦게 까지 책을 보다 잠자리 들어가려니 한 스님의 잠꼬대인지 앓는 소리가 유난히 가슴 아프다. 나지막하여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치고 말 듯한 작은 신음소리가 혹 속으로 삼켜어 뱉거나 이를 악물어도 터져 나오는……. 숨이 막히다 못해 턱턱 걸리는 절정이 저렇지 않을까 싶어, 왠지 머리 한 번 쓰다듬고 서글픈 생각에 가려는 다리를 주저앉혀 한낮의 더위도 가라앉아 서늘하게 맑은 별빛아래 앉는 것이다.

처량히 라는 것은 애당초 제 모습에 갖다 붙일 이름이 아니요, 다만 혼자라는 것……. 소름이 끼치도록 혼자라는 것이 가슴이 메어지고 손이 떨리도록 슬픈 것이다.

이름 모를 저 스님은 제 몸이 신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는가! 저 편안해야 할 잠에서조차 저 스님의 몸의 감각은 저 신음에 게조차 등을 돌리고 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몸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감각이 각각 느껴지는 그 느낌에 대한 적당한 외면과 무감각 속에서 나를 지탱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 그 래야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오늘 아침 포행을 가는데요, 발밑에 시커먼 자욱이 있어 내려다 봤더니 죽은 곤충에 달라 붙은 수백 마리의 개미떼더군요”

도반스님께 들은 이 말에 나는 슬픔에 사무쳐 일어날 수 없어야 했다. 슬픔에 대한 외면 고통에 대한 외면 그 철저한 이기가 나를 지탱

해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 포행하다 발밑에 한 적나라한 죽음의 시체를 동시에 수백 마리가 뜯어먹으며 신선한 새벽을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발밑에서 보았다면, 나는 얼마나 슬픔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어야 할 이 아침이었을까?

그 곤충의 죽음처럼 죽음이 더욱 그러하다. 죽음은 어느 날 이 몸을 떠나갈 것이다. 나도 결국 나를 떠나가야 한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몸부림마저 살아있음의 위대한 일부였다는 사실.

저주와 냉소와 비웃음으로 옷을 짓고 절망과 한탄과 후회로 밥을 삼고 비틀림과 동정 받음으로 숨을 이어간다 해도 그 삶은 위대하다. 죽음 앞에서 살아있다는 이 순간은 얼마나 위대한 도전인가!

별들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응시인가?

이름 모를 스님이 잠자며 어딘가 아픈가 보다. 그 스님은 알지 못하는 듯 신음소리만 이어지고 밤하늘의 별을 내 눈이 순식간에 찾아내듯, 어둠의 방을 뚫고 내 귀가 그 소리를 쫓아간다. ‘애써 가슴 아프다’ 이렇게 쓰지 않아도 사람의 느낌은 아픈 곳으로 피울 줄 아는 한 송이 꽃이다. 내 삶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그 고통에 대한 느낌들의 정중한 배려이다. ‘그래 아프구나, 아프구나……. 좀 쉬렴. 바다처럼 편안히 누워, 편안하…….’

치문 여름의 바람

도갑道岬 / 치문

치문 여름에 바란다

목탁소리 때맞추어 잠중에서 깨어나길...
108번 죽비소리 하루 활력 실어보길...
발원문 낭독으로 모두 하나 되어보길..

치문 여름에 바란다

낮설은 한자들이 친숙하게 다가오길...
난해한 문장들도 쉬이 암기되길...
꼼꼼한 과제 점검 감사하게 느껴지길...

치문 여름에 바란다

공양 후 경행시간 반복습의 없기를...
무더운 오후간경 졸음 이겨 내기를...
간경 없는 오후에는 운력 또한 없기를...

치문 여름에 바란다

이슬비 오는 아침에는 산책하며 여유롭길...
햇살 따가운 정오에는 나무그늘 드리우길...
소나기 쏟아지는 오후에는 냇 놓고 빠져보길...

치문 여름에 바란다

석가모니 정진소리 절로 신심 솟구치길...
매일매일 곳곳마다 수행처로 온당하길...
공부하는 대중스님 건강으로 정진하길...
진실로 진실로 나는 바랍니다.

마음

동오東悟 / 치문

불교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루 하루 궁금하기만 하다가 결국은 서점에서 직접 불교에 관한 책을 보기 시작 하였습니다.

도대체 불교란 무엇인가?

한 권, 두 권 계속 보아도 무슨 말인지 더욱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직접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 보아도 정확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알 때 까지 서점에 가서 혼자서 책을 보았습니다.

하루.. 한 달.. 백일 동안 혼자서 책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불교에 조금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출가를 결심 하였습니다.

송광사를 직접 찾아와 행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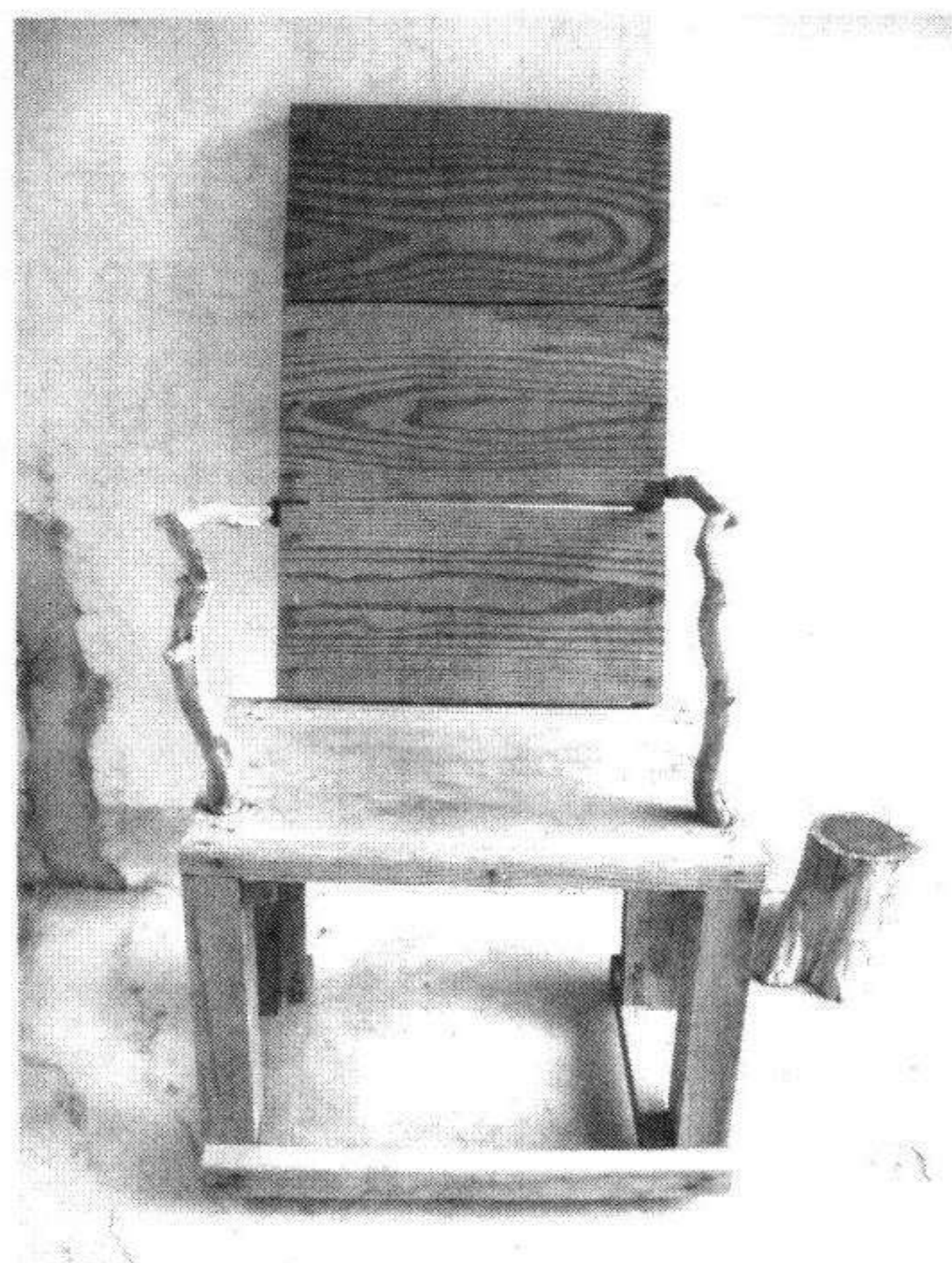
저는 육바라밀 중에 '인욕' 하나만 잘 배우고 싶었습니다. 인욕 하나만이라도 잘 배우면 사미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 후 사미계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강원에 와서는 첫 번째 인욕과 두 번째는 '자야'를 배우고 싶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아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강원 4년을 잘 보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나란 죽어서 없다는 나의 마음!



2년 / 인연 그리고..

정달正達 / 치문

사람들은 많은 추억과 그에 맞는 인연에 어울려 과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도 한다.

이제 출가하여 2년을 넘기면서 출가와 관련된 인연을 몇 가지 소개 하고자 한다.

하나, 송광사

20년 전 수덕사 말사에서 3년간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외우고 그리고 천수경을 낭독하면서 절 생활을 배웠다. 그리고 사회에 돌아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회에 입탁하여 그냥 흥내만 내는 불자로서 어언 20년을 흘러왔다. 그러나 사회생활이 비록 넉넉하고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틈만 나면 언제부턴가 ‘무상’하다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차는 날이 많아 졌고, 그러한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과의 마찰, 사회 내에서의 갈등은 커져갔다. 결국 더 늦기 전에 굳게 결심을 하고 서울에서 광주행 버스에 몸을 싣고 송광사에 도착하였다.

시자실에서 면벽 좌선을 하면서 ‘다시 돌아갈까?’ ‘과연 이 길이 옳은 걸까.’ 갖가지 잡념이 머리를 맴돌았다. 예불시간에는 다리가 너무 아프고 쭈셔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또 나를 괴롭혔다. 그래도 나름대로 스님들과 교분도 있었고, 지주는 못 왔었지만 간혹 울력할 때 오게 되면, 언제라도 반갑게 반겨줄 것 같았던.. 그리고 한가하고 여유롭게만 보였던 이 생활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에 결국 며칠이 지난 후 조용히 송광사를 나서게 되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보니 몇 일간 보냈던 절 생활이 그리워졌다. 최소한 절에서 생활했을 때 육체적으론 피곤했어도 정신적으론 편안했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출가를 결심하고 통도사로 향했다. 통도사에서 3,4개월 생활을 하면서 출가의 목적에 회의를 갖게 되었고, 다시 송광사로 오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아 해인사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통도사에서 3,4개월의 경험이 오히려 해인사의 행자생활은 힘들게 만들었고, 그때마다 나와 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래도 ‘일체유심조’ 라는데 어디를 가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지 2,3개월의 생활을 접고 다시 통도사에서 행자생활을 끝내고 사미계를 받고서 강원을 선택할 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처음 출가하여 송광사에 있을 때 학인 스님들의 여범함이 행자시절에도 머릿속에 고이 간직된 탓에 지금 송광사 학인의 한 사람이 된 이후에도 그 여범함이 조금도 바래지 않은 모습을 나는 본다.

둘, M스님

통도사에 행자생활을 하면서 행자반장소임을 하고 있었는데 선방에 다각을 돌리고 나오는 길에 스님 한 분이 쫓아오면서 나를 불렀다. “행자님, 어디서 많이 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상당히 낮이 익었다. 20년 전에 G사에서 같이 공부했던 도반이었다. 그 스님은 나보다 부처님과의 인연이 숙연했던 탓인지

내가 학교에 복학한지 2년 후에 출가하여 여법한 남자로서 수행정진중이었다. 나도 진작에 출가 하는 건데. 'M스님 출가할 때 연락 좀 주시지 그랬어요..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정진할게요'

셋. Y스님

통도사에서 행자반장을 하면서 소임의 성격상 행자님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일주일에 몇 차례 입산하고 하산하는 행자님들이 많은 탓에 얼굴을 전부 기억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송광사 강원에 와서 한 달이 지날 즈음 약간 낮이 익은 스님이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낮은 익는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스님한테 물어보니 통도사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생활했다고 한다. 내가 좀 괴롭혀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절에서는 괴롭혔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탁마라고나 할까?... 아무튼 "Y스님 과거를 잊고 이렇게 송광사강원에서 다시 만났으니 대단한 인연 같은데 같이 열심히 수행정진 합시다. 알았죠 Y스님!"



참회를 받는 이유

연진鍊進 / 치문

절집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아마도 큰소리로 예불 하는 것과 지장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분심을 삼키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늘 단순하고 반복된 생활 속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는 아마도 절집이 최고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회를 내린다. 심기가 불편하고 ‘참회를 내리는 것도 가지각색이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행자 때에는 참회를 많이 받았지만 역시나 사미가 되어 강원에 들어와서도 참회라는 이름의 전매특허는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으니 받는 것이구나, 날 잘되라고 잘못된 점을 고치라고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은 약이 된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약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 무조건 참회만 내려야 하는 것인지,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인지 한 번은 말로써 타이르되 그것이 안되면 참회를 내리면 될 것인데... 이 또한 나의 상(相)일 것이다.

내가 참회를 받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잘못하니까?’ 그렇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 스스로가 문제다. 그것을 고치는 것이 대중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나로 인해 여러 대중스님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어떤 때에는 참회를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수긍이 가지만 강하면서도 부드러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심이 나고 회의감이 들고 강원 생활에 짜증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에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행자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나 자신도 답답한 면이 있지만 참회를 내리는 쪽에서도 어떤 때는 융통성이 너무 없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이 글을 보면 또 과썸죄에 걸릴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글로써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심정으로 내 생각을 한 번 비춰봤을 뿐이다.

참회를 받는 이유? 또 한 가지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인 것 같다. 누가 참회 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참회내리기를 좋아하겠는가? 서로 기분 나쁘고 감정만 상하게 되지만 내 잘되라고 내리는 것이니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작은 일까지 지적하며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점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강원생활을 원만히 하려면 그저 조용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참회 주면 참회 받고 그 길 밖에는 없는 것 같다. 하는데 까지 열심히, 내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여러 도반스님들을 시봉한다고 생각하며, 참회에 대하여 분심을 갖지 말고 이 한 철을 무사히 회향하기를 발원한다.

수마(睡魔)

연종蓮宗 / 치문

오늘도 무더위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한 시도 부채가 쉴 새도 없이 나에게 바람을 건네준다. 오후 2시, 점심공양 후 밀려오는 졸음을 참으며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송광사강원은 백일장을 열었다.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 이리저리 볼펜을 움직여도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를 잡아 세우고 어떻게 쓸 것인가 나에게 반문해 본다.

아! 수마(睡魔)!

나는 행자 때부터 한번도 이겨보지 못한 졸음과 겨뤄보기로 했다. 지금도 졸음을 이기지 못했지만 행자 때도 마찬가지였다. 예불, 간경 때 앉아 있으면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수마가 내 몸을 감싸 안으며, 부처님과 책은 내게서 멀리 달아나버리곤 한다. 부처님의 명호도 불러보고, 천수경도 외워보지만 그럴수록 수마는 내 몸을 더욱 더 조여 온다. 도반스님들은 낚시질 잘 한다고 놀려대지만 나는 걱정이다.

예불, 간경, 청규습의 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았다. 윗반 스님들이 조연도 많이 해 주지만 이겨 보려고 해도 항상 나는 챔피언이 될 수 없는지 도전자에 머무르곤 한다. 어제든 오늘도 지적, 내일은 졸지 않아야지 해도 소용이 없다.

똑같은 시간,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선다.

며칠 전부터 행자 때 나의 주머니에서 분신처럼 따라다니던 송곳을 찾았다. 오늘도 수마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가오면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먼저 내밀어서 이겨 보리라. 나의 도전은 언제나 계속되리라. 비온 후 땅이 더 단단해지듯 오늘도 나의 각오는 더욱 더 굳건해진다. 꼭 수마를 이겨 출가 때 가슴에 새긴 말들을 꼭 이루리라. 그리고 나는 옆에서 질책해주시는 윗반스님, 치문반 도반스님 들께 항상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



무제(無題)

목우(牧牛) / 치문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어느 작가의 솔직한 말이 떠오른다.

한편의 글을 쓰기는 쉬울지 모르나 그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 일필휘지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뜻일 게다.

작년 칠월, 절집사람이 되는 게 어떨까 하고는 일주일 만에 삭발을 했다.

그런 나에게 대신심이나 대의심은 존재치 않았다.

다만 영똥한(?) 포고발심(怖苦發心)이 뒤를 받쳐주고 있을 뿐. 그리고 행자생활을 거치고 송광사 강원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절 집안에 대해 많이 알고 불교와 불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의 소유자들도 많이 봐 왔다.

한 마디로 불법에 문외한 이었던 나에게서는 부러운 스님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강당생활을 하면서 나를 놀래키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그로인해 던지고 싶은 물음!

‘강원 생활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이다.

나의 이러한 물음도 속가적 발상일지 모르나 뒷받침 할만한 글을 보태 보자면..

강원생활을 통해 下心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염세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좋게 말하면 전이된, 변형된 下心으로 봐야할까.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열심히 하려하거나 도반 스님께 조그마한 지적이라도 할라 치면 오히려 메치기를 당한다. 윗반 스님이나 도반스님 눈치 살피면서 적당히 자신의 편익을 도모하면 잘사는 것이지만,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스님은 반드시 좋지 않은 쪽으로 회자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래서 뒷걸음치게 된다. 아주 슬금슬금 뒷걸음 쳐서 제 몸만 생각게 된다.

왜? 답은 각자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다.

바람이 있다면 도반스님을 위한 일이건, 자신을 위한 일이건(잘 생각해 보면 둘 다 위하는 것이다. 대부분...) 열심히 강당생활을 하려는 스님들이 퇴굴심 내거나, 마음속에 포기심 일으키거나, ‘내가 나서서 저 거 해서 무엇하리요’ 라는 생각에 염세적 시각을 갖지 않게 서로 애썼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중이 바라는 게 있으면 안되겠지만 대중생활인 만큼 중생심이 존재치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서로 탁마해서 능동적인 생활방식을 택해야 좀더 낫지 않을까 싶다.

혹여 初學의 주제넘은 발상일지 몰라서 우려도 되지만 기회를 이용했으니 자비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효(印曉) / 치문

스님이 된 후 자주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수행자'라는 단어이다. 먼저 이 단어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나는 지금 수행자로서, 출가 전 세속에 있을 때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건데 별로 달라졌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듯 하다. 오히려 어떤 면에선 세속에 있을 때보다 스님이 된 지금이 더 퇴보한 듯싶기도 하다. 세속에 있을 땐 적어도 먹고사는데 직결된 일이나 기술만큼은 남에게 뒤쳐지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며 살아왔지만, 절집에 들어와서는 그런 면마저 없어진 것 같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안일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러면 마음에 번뇌는 내려놓고 사는가?

이상(我想)-我癡 我見, 我慢 我愛-은 버렸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세속인들보다 낫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비롯한 우리 스님들은 은근히 세속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스스로의 수행은 돌아보지 않고 신도들에게 절 받으려고 하고, 신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불교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타 종교의 성직자들이 신도를 대하는 자세 - 신도들의 봉사자로서 신도를 모신다는 마음자세 - 는 배워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본다.

머리를 깎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도인이 되는 것인가? 세속에서 배웠던 윤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강당생활을 하다보니 20대 초반부터 40대 까지 같은 반의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한 지대방에서 뒹굴며 살고 있다. 부처님 법으로 보자면 물론 나이란 없다. 다겁의 과거생으로 보면 누가 먼저 태어났다고 할 수가 없다. 물론 도반스님 중에 나이를 내세우는 이는 없다. 그러나 2-3년, 경우에 따라선 4-5년의 나이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 해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이상의 차이를 무시해 버리는 행동은 人天의 스승이라 자부하는 스님뿐만 아니라 저자거리의 속인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정 세속나이를 초월한 도인이라면 먼저 아래로 한 10년쯤 초월해 보자.

자기가 아직은 중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도반이 아니라 설령 세속인이나 행자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세속에서 살아온 경험과 세월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로인해 그들에게 설령 서글픈 마음이라도 생기게 한다면 그것도 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想生竹筆文 第三

(副題：美之者野隱 苦哉人底)

도해度海 / 사교

美
非醜
甚麼妍
亦如何蚩
不知我道通
阿凜兮秋含兮
流枕溪樓之下川
出解憂所之內洞物
僅僅懸枝之末丹楓等
悽慘悄裸轉地之上落葉
於大房沙彌唱莊重看經聲
於折中觀光客喧理若爾召利
以寺刹式食菜蔬爲主之鉢盂養
以布帳馬車式喫雜食旬帶五隊空
嚴冬雪寒開悟壯烈吐露其香之梅花
世世生生無時晝夜瑟瑟風便所之來吟
同類之水聲香果然美醜可以說皆彼心竹
嗚呼羅阿阿阿阿阿阿阿阿阿阿阿阿阿阿阿阿
上以問於天下以難於地默無言二世代天地答
萬別千差別皆從妄想生若離此分別何物不齊平
痛哉我之漢文能力到遮裏噓呶噓呶今當爲摩無異

아름다움!
추한 것은 아님
妍이란 것은 뭣꼬?
蚩란 것도 또 뭣이고?
나는 도통 모르겠네!
아름다움이여! 추함이여!

枕溪樓 밑에서 흐르는 물과
解憂所 안 쪽에서 나오는 동(?)물.

우주의 탄생

꼭 한 번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아이의 손을 잡아보고 싶다
할머니의 손에 쥘 고사리 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마치 시작과 끝이 한 날 한 시에 매듭져진 신기(神奇)와 같아
먼 백조자리의 첫눈 옆, 무슨 별자리 같아진다
몇 백 광년 전 사라져 버렸다는 어느 별의 마지막이
이 땅의 밤하늘에 저리 밝듯이 그저 옆에 앉아 있으면
죽음마저도 행복한 전설이 될 것 같다. 할머니의 손과
그 아래 꼬마가 그러하고 나 말고도 바라보는 여러 명을 이어보면
어느 왕국의 신화보다 더 장엄한 우주의 탄생이다
눈 감아도 잡히는 것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늘이다.
하늘에도 담기지 않는 무수한 별빛이다!

편집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찰중스님의 죽비소리! “취침에 들겠습니다.” 딱! 딱! 딱!

도세 도세 백팔 번을 돌아~나무 이미 타 부우 불 관세음보살 발심출가하여 송광사에 들어온 지 1년 하고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우소 주위를 돌고 있는 금붕어들을 보니, 일년 전 그때 보던 놈들이 아니고 이젠 제법 커서 보기에 듬직하게 느껴집니다.

‘도세 도세 백팔 번을 돌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문 수업 중 손에서 돌아가고 있는 염주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문득 어릴 적 할머니 손에 쥐어진 염주가 떠오릅니다. 저를 안아주시던 따스한 손길, 지금은 어디계신지 어디에 오셨다 가셨는지요..

출가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행자실 입망하던 날, 주지스님께 발심출가의 뜻을 비추어 허락받던 날 “스님! 저는 저 혼자만이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제 한 몸을 빌어 세 사람이 함께 출가하는 것 입니다. 할머니 손에 돌던 염주 어머니 이어 돌리고 지금의 제가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3대에 걸친 출가 발원입니다.” 속가의 모친 역시 시어머니이신 할머니를 따라 불법인연을 맺으셨고, 저 역시 어머니 손잡고 절문을 드나들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가사장삼 수하고 경을 배우며 염주를 돌리고 있네요.

반자(半尺) 되는 붉은 줄에 염주를 꿰었으니
끝없는 펼쳐진 삼천세계가 내 손아귀에 잡혔도다.
사람들이여 주객을 나누지 말라.
염주를 돌리다 스스로 깨치는 때가 오리라.

편양 언기선사의 염주에 관한 시입니다.

오늘 대중공양으로 김밥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출가 결심하고 집에서 나오는 날 어머니께서 평소 내가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개도 먹지 못하고 그냥 나왔지요.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그때 그 김밥! 치우지 못하고 3일을 두고 보았다고 너털웃음을 지으시네요.

함내세요. “삼계 대도사가 되겠다고 가는 사람 내가 어찌 막겠냐.” 하시던 그 말씀 절대 잊지 않고 살아
가겠습니다. 내 곁에 계셨던 관세음이시여...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서쪽에서 온 편지

혜일慧日 / 치문

전 서쪽에서 온 소승불교 스님이요 한국에서 이천년 칠월 칠일에 직지사에서 사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송광사에서 강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생활을 한 지는 몇 개월 안됐습니다. 소승불교 생활하고 대승불교를 생각해 보면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승불교 스님의 생활은 쉽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도를 얻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스님의 생활은 좀 힘들지만 경험 많고 이해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 대승불교에서 좀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도를 얻을 수 있다고, 일찍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를 얻는다는 뜻은 아리한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불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은 항상 같이 잘 친하게 사는 것, 같이 예불하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른 것도 있지만 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제까지 생활해 오는 중에 한국에서처럼 경험을 얻고 이해되는 좋은 점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은 제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스님생활에서 이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스님생활을 계속하고 싶거나 잘하고 싶으면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 마음이 잘 안되면 스님생활하기가 아주 위험하고
그리고 분명히 현재와 미래도 위험할 것 입니다. 그래서 스님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한 마음과 한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제(無題)

도성道成 / 치문

어느덧 7월의 뜨거운 햇살이 등줄기에 구슬을 맺히게 하여 먹물 옷이 진한 잿빛으로 물들어가는 계절 초여름이다.

여미고 다져온 신심을 풀어 헤치듯 출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수행자들의 굳건한 의지마저 녹이려 합니다. 허나 어찌 출가 수행자의 그 치열한 구도심을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헌데 부끄럽게도 식발염의하고 발심 출가한 이 몸은 뜻한 바대로 길을 내달리지도 못하고 그 굳건했던 신심이 풀어졌었나 봅니다.

송광사 강원에 입방하여 첫 안거에 병마(病魔)가 찾아왔으니 말입니다. 누구라도 출가 수행자라면 안거기간에는 외부출입을 삼가하고 수행정진 해야 하거늘...

병원에 입원하여 1주일간을 보내면서 참으로 많은 번뇌와 싸워야 했었지만, 도반스님들의 도반애가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허나 감사함보다 미안함이 앞서서 빨리 완쾌되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을 일으켰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지 회복은 더 늦어지고..

이제는 거의 완쾌 되었으나 아직도 불편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조금 더 지켜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머리 숙여 두 손 모아 합장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어쨌든 저에게 하안거는 반이나 남았지만 이겁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지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마음을 점검하고 추스려서 더욱 기행정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 해야겠지요. 아직도 실수투성이(행익時) 허점투성이(소임時)인 모습이지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런 것이니...

이제 뒤돌아보는 여유도 갖고 적당한 긴장으로 행익시 뻣뻣함은 부드러움으로 바뀌어 실수를 줄이고 허점도 매사 점검하여 보완해야 할텐데..

그리 되겠지요

오늘은 부처님 전에 두 손 곱게 모으고 발원 올려야겠습니다. 내일 아니 내일이 발원 올립니다.

참회하고 씬 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가피 주십사하고..



일월(日月)

해청海淸 / 치문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또 다른 모습을 찾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순간순간 다른 모습들... 눈 깜짝할 때 일어나는 모습들 이것이 나의 모습일런가? 꿈을 꾸듯 깨면 사라지고 닥치면 부딪히는 '나는 누구인가?'

도무지 도망가는 나를 잡을 수가 없다. 조계산은 아름답게 가을, 겨울, 봄, 여름이 지나가며 나에게 많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는 이 조계산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질 못했다.

조계산은 나를 보고 보여 달라고 하지만 나는 너무나 평범하게 조계산을 보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도량석 소리에 눈 비비며 일어나기 싫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내 발이 얼마나 무거운지, 예불을 마치고 조용한 송광사 새벽달은 왜 저리 빛나는지, 간경소리 또한 내가 할 때보다 다른 스님의 간경소리는 왜 이리 청아한지, 공양은 먹는 나보다 보여지는 스님들은 왜 저리 여법한지, 상강례 시간에 닦은 나의 고무신 보다 도반 스님들의 고무신은 왜 그리 청정하게 보이는지, 강의시간에 듣는 나보다 강사스님의 열의는 왜 저리 나를 움직이는지, 운력은 나를 보고 웃고 나는 누굴 위해 웃는지, 절하는 나와 받는 이에게 지심귀명례를 진심으로 하는지, 예불 마치고 나올 때 나의 가사자락보다 저녁놀이 왜 저리 붉은 지, 모든 게 의심이 간다. 오히려 오늘 이렇게 나를 보려고 쓴 이 글이 나를 보게 하는 것 같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된다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것 같다. 노력하지 않으려는 나를 다스리고 싫어하려는 나를 다스리고..

正 見 3

측간 가는 길 민들레 꽃은
눈에다 넣고 싶었지만
자꾸만 똥은 뉘 버리고 싶네

꽃 보다 싸고
밥 먹고 싸고
보고 먹고 모두 똥인가?

똥은 똥끼리 모아 측간 가는 길
꽃밭에 똥누는 개 한 마리와
민들레 위 내려앉는 나비의 그림

아무리 보아도 냄새도 없고
그 속에 머리 깎고
살내음도 지운 그림!

효산曉山 / 사교

화보와 강원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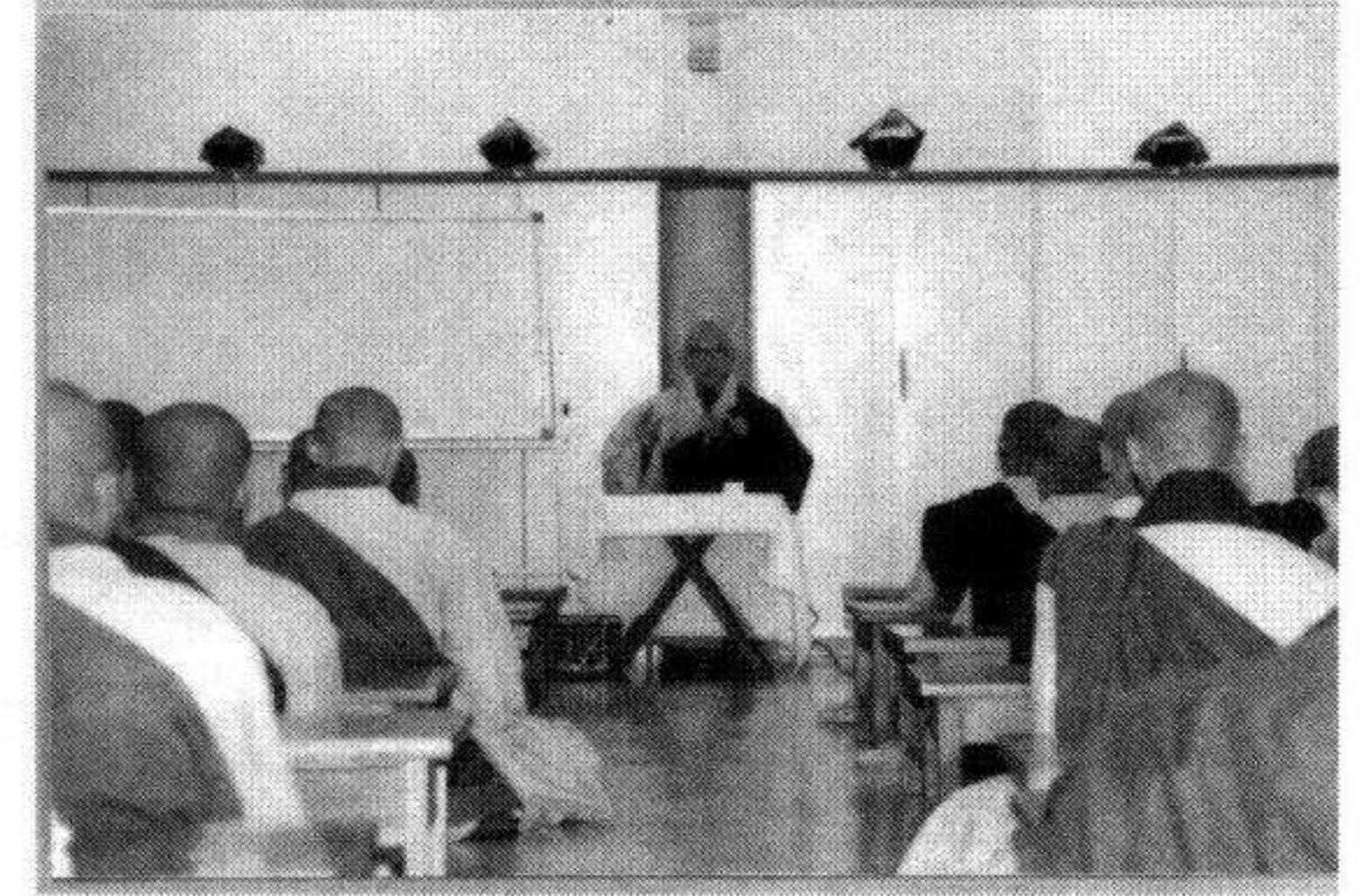
- ◇ 아홉 분의 대교반 스님들께서 4년간의 강원생활을 무사히 회향하고 본분납자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 ◇ 티벳에서 달라이라마를 모시고 정진하셨던 청전스님의 불교수행강의가 있었습니다.
- ◇ 오랜만에 네 개 반원이 한마음으로 월출산으로 봄산철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 3년만의 찾아올력으로 사중전체가 찾아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 ◇ 보살계를 받지 못한 치문반 스님들을 위해 율원스님들께서 수계식을 해주셨습니다.
-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강원 차량을 여러 스님들의 도움으로 새로 마련했습니다.
- ◇ 해체 보수 중인 임경당에 기와를 올려 지붕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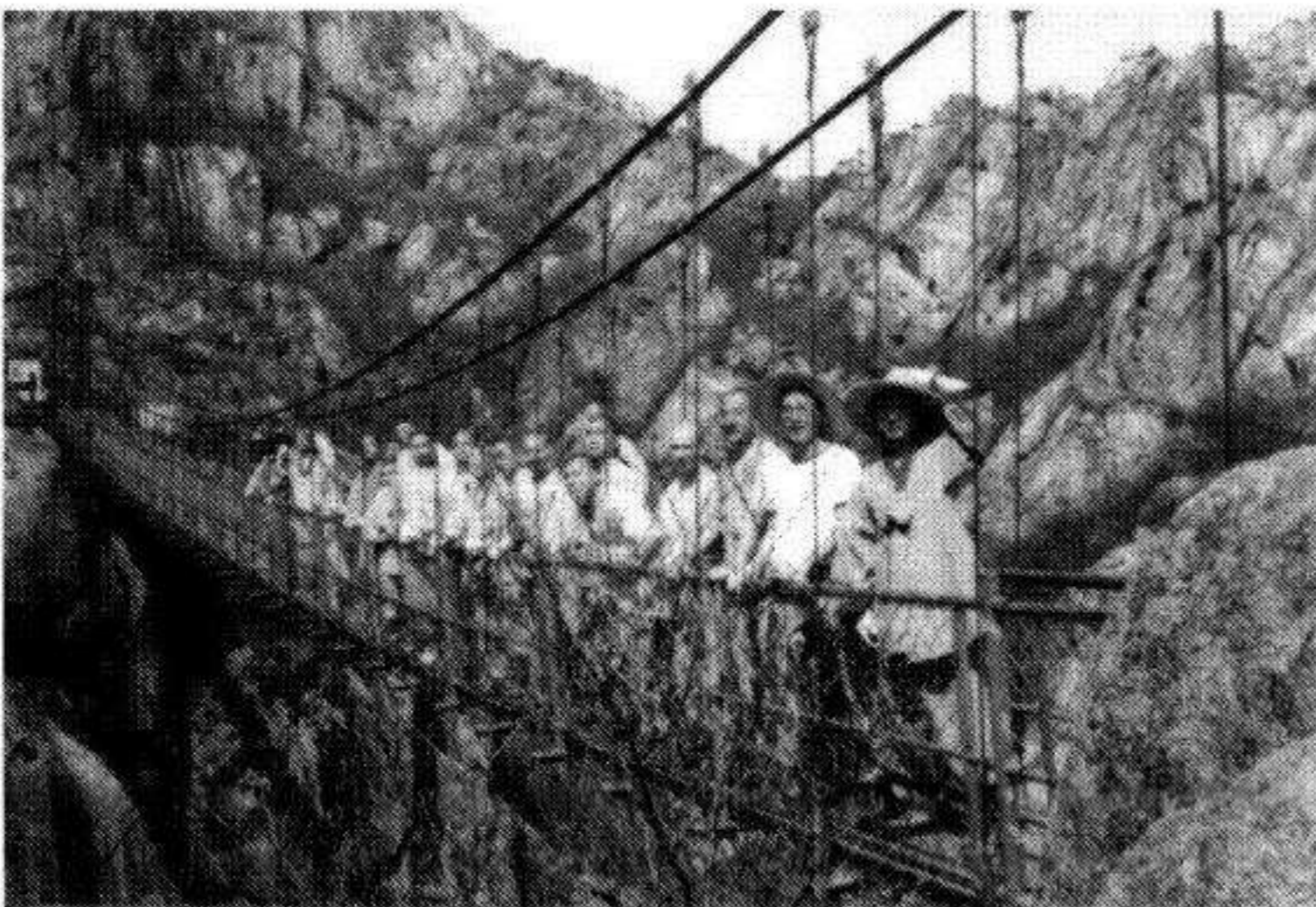
2월 25일 제13회 강원 졸업식



4월 15일 원통스님 보현행원품 특강



3월30일-4월1일
청전스님특강



4월 19일 봄산철 산행(월출산)



5월 2일 찾아올력



5월 5일 세계평화기원 종교음악회
참가



5월 8 - 9일 제 782회 보조국사
종재 및 보살계 수계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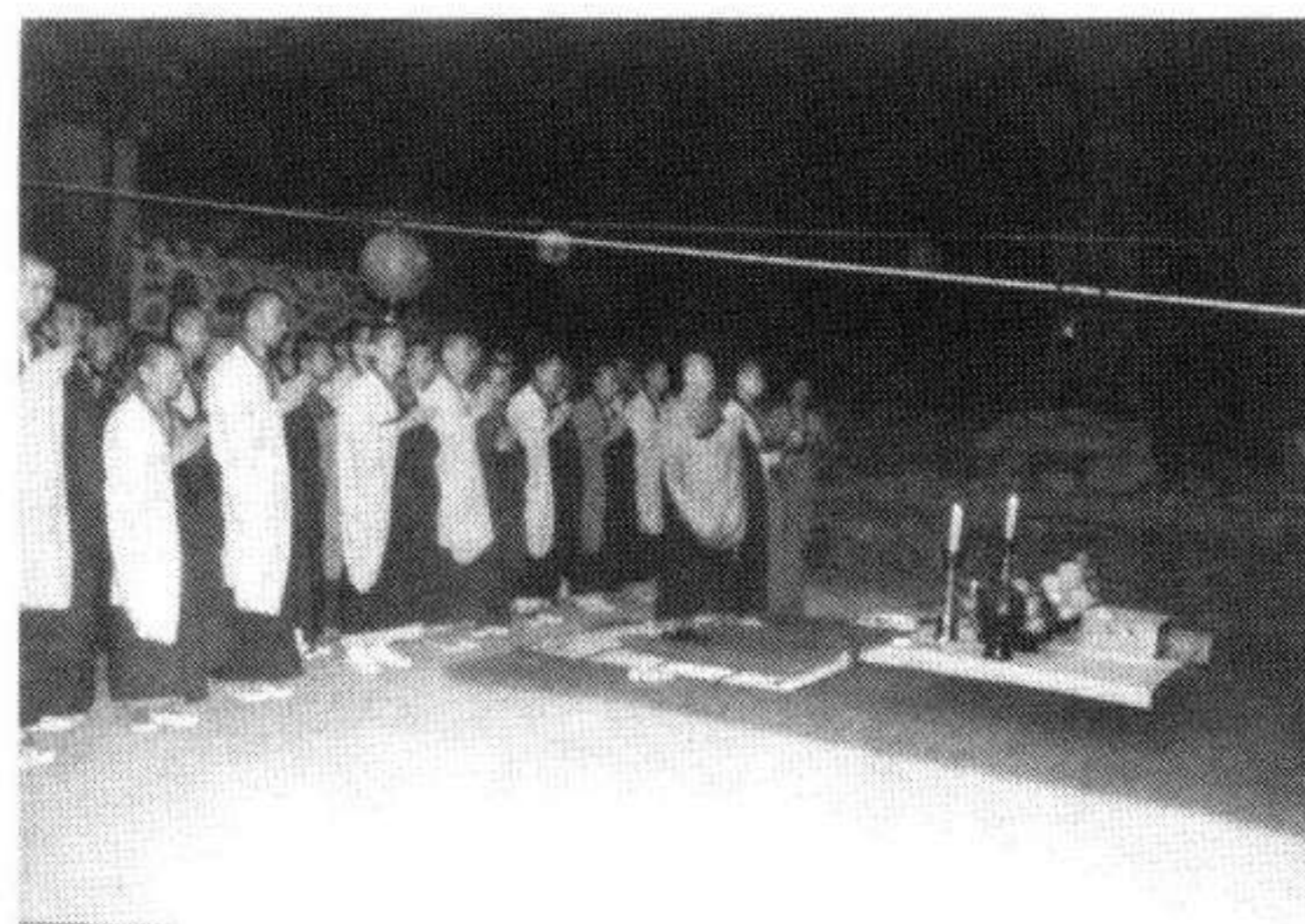
5월 25일 치문반 보살계 수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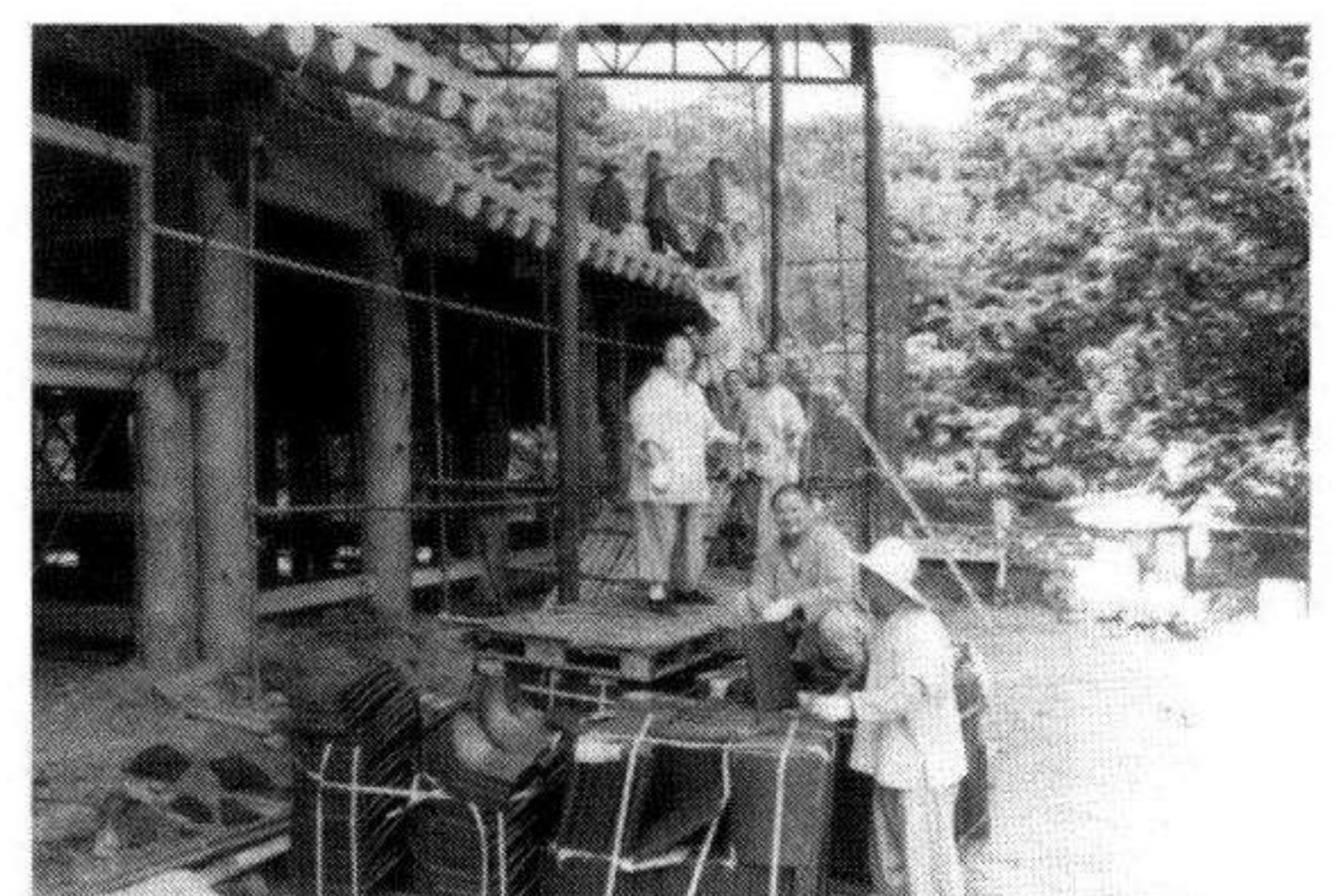
5월 26일 하안거 결제



5월 29 - 30일 발치기 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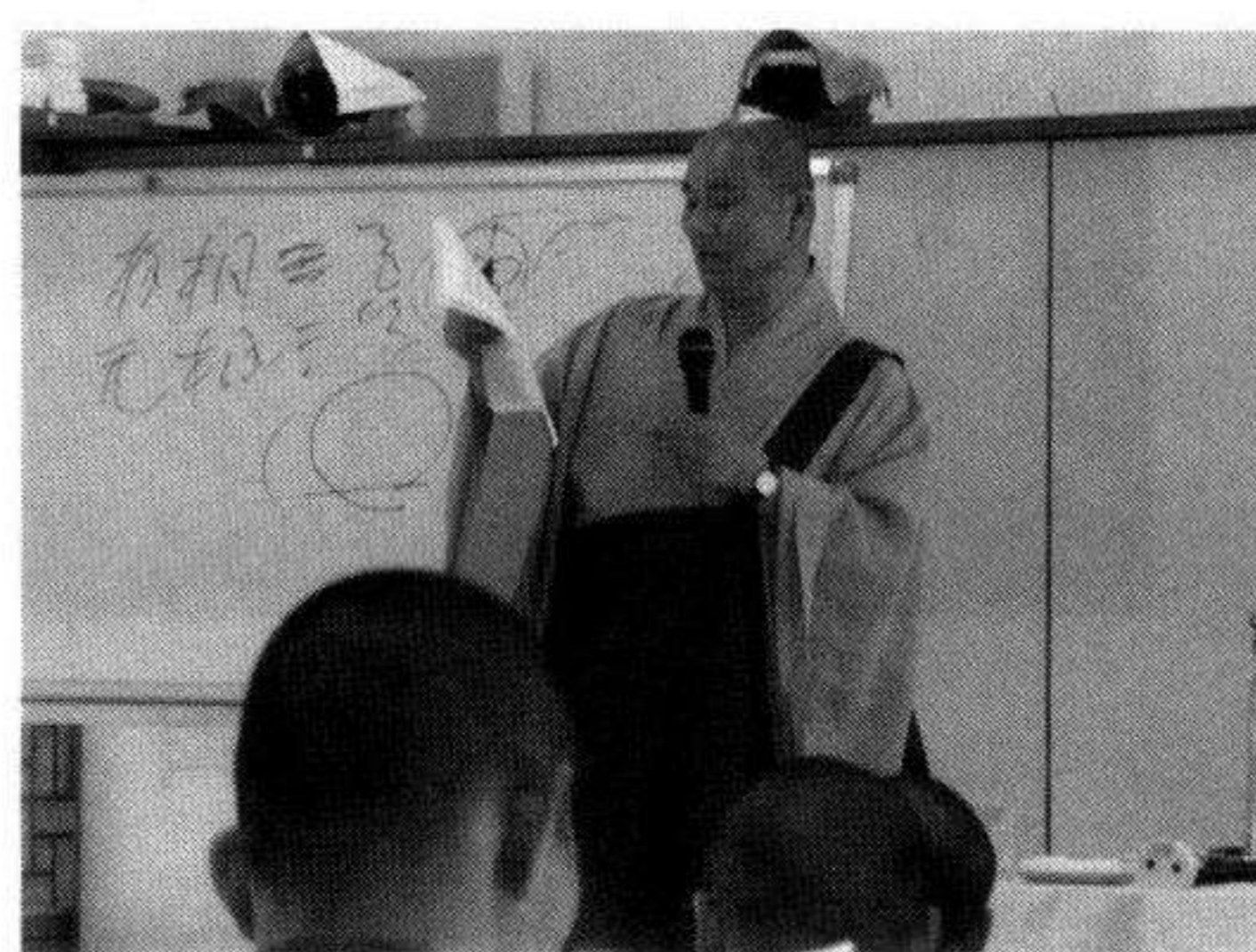
6월 7일 강원 새차 무사고 기원고사



6월 11일 임경당 기와 대중울력



6월 28일 감자밭 울력



7월 14-17일 월암스님 간화선특강



7월 18일 반결제 산행

三要十病을 통해 본 禪要

혜광慧光 / 사집

“생사의 일이 크고 無常이 迅速하다. 태어났으나 어디서 오는 줄 모르니 태어남의 큰일이요, 죽어서 가되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것을 죽음의 큰 일이라”고 한다. 다만 이 生死의 一大事가 參禪學道の 喉襟이며 成佛作祖의 管轄이다.”

위 대목은 禪要에서 高峯和尚이 「除夜小參¹⁾」 첫머리에 밝힌 내용이다. 우리는 이 나고 죽는 一大事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심 출가하여 승가를 이루면서 부처님의 慧命을 잇고 또 戒定慧 三學을 배워 우리 안의 불성을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禪要는 話頭禪 <祖師禪>을 中心內容으로 하여 어떻게 우리가 참구하여야 이 一大事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밝혀 놓은 것이며 또 參禪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세가지 要體와 參禪하는데 장애가 되는 10가지 병통을 說해 줌으로써 後學들이 外道와 邪魔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수행방편에 의해 參禪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럼 먼저 三要十病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선요」 TEXT를 중심으로 부연설명하면서 이 글을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三要中 第一要是 有大信根이니 明知此事가 如靠一座須彌山이요(제 1요는 큰 信根이 있어야 하니

1) 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 <선요> p, 51 이하 이 보고서에 표시된 쪽수는 교육원 간행 <선요>의 쪽수를 나타낸다.

이 일은 한 수미산에 의거함과 같은 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第二要是 有大憤志니 如遇親父冤구하야 直欲便與一刀兩段이요(제 2요는 크게 분한 생각이 있어야 하나니 마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났을 적에 당장 한 칼에 두 동강을 내려는 것과 같은 것이요. 第三要是 有大疑情이니 如暗地에 做了一件極事하야 正在欲露未露之時니라.(제 3요는 큰 의정이 있어야 되나니, 마치 어두운 곳에서 한가지 중요한 일을 하였는데 곧 드러나려 하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때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P40)

다음으로 十病의 내용을 살펴보면

寔是宿無靈骨麼아(전생에 닮은 선근이 없는 것이 아닌가?)

寔是不遇明師麼아(눈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寔是一暴十寒麼아(하루 정진하고 열흘 방일한 것이 아닌가?)

寔是根劣志微麼아(근기가 하열하고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寔是汨沒塵勞麼아(번뇌망상에 골몰한 것이 아닌가?)

寔是沈空滯寂麼아(공적한데 빠진 것이 아닌가?)

寔是雜毒入心麼아(잡된 독이 마음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寔是時節未至麼아(시절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寔是不疑言句麼아(언구를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

닌가?)

寔是未得謂得 하며 未證謂證麼아(언지 못하고서 얻었다하고 증득하지 못하고서 증득했다 한 것이 아닌가?)

이상으로 텍스트에 나와 있는 三要와 十病의 내용을 옮겨 보았는데 이 외에 高峯和尚은 삼요와 십병에 대해 禪要 곳곳에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았다. 이제 그 내용을 예거하면서 좀더 소상하게 이 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三要中 제 一要인 大信心의 중요성을 고통화상은 다섯째글 「示衆」에서도 언급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어느집 처마 끝에 있는 한 무더기의 쓰레기더미 속에 감춰진 無盡寶藏’의 비유를 들면서 “이 寶藏은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들의 한 믿음에서 나타나는 줄 알아야 하며 만일 믿어진다면 결코 그르치지 않겠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 일대사를 해결할 수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곧 “믿어 가져서 빈궁한 결인됨을 면하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須知此藏은 不從外來나 皆從你諸人の 一箇信字上發生이니라 … 中略 … 便恁麼信去하여 免教做箇貧窮乞兒어다.)

또 「示信翁居士」(p.31)에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첫 구절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인용해 보면 “무릇 참선은 승속(縑素)을 구별할 것 없고 오직 하나의 결정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大抵參禪은 不分縑素하고 但只要一箇決定信字니…)그러면서 華嚴經의 善財童子, 法華會上의 八歲龍女와 涅槃會上의 廣額屠兒 阿那律陀 등이 求法한 고사등을 인용하고, 또 옛날 善星比丘는 부처님을 20년 동안 좌우에서 시봉하였지만 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를 이루지 못하고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음을 열거하면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며 믿음은 위없는 불도며

믿음은 영원히 번뇌의 근원을 끊을 수 있으며, 믿음은 속히 해탈의 문을 증득할 수 있다. (信是道元功德母며 信是無上佛菩提며 信能永斷煩惱本이며 信能速證解脫門)”고 하며 거듭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大憤志를 거론한 法門을 살펴보면, 우선 아홉째 글 「示衆」의 마지막 부분에서 “만일 이 일을 논하자면 마치 물을 거슬러 배를 끌 적에 한 삿대를 밀어 올리면 열 삿대나 밀려나고, 열 삿대를 밀어 올리면 백 삿대나 물러나서 버티면 버틸수록 더욱 더 물러난다. 물러가고 물러가 설령 바닷가까지 물러갔더라도 뱃머리를 돌려 결단코 또 거기서 버티고서 밀어올리려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지조와 지략을 갖추었다면 바로 집에 이른 소식이다.(若論此事 인댄 正如逆水撐船하여 上得一篙에 退去十篙하고 …中略… 若具者般操志인댄 卽是到家消息이라)” 또 바로 다음 단락에서 말하길 “이 일의 적실하게 공부하는 간절한 곳은 마치 맞붙어 씨름하는 것과 같아서 털끝만치라도 두려워하는 생각이나 가는 티끌만치라도 차별의 생각을 마음속에 쌓아 두면 어찌 열 번 씨름하여 아홉 번 지는데 그치랴. 아직 만일 쇠로 된 눈, 구리로 된 눈동자를 가진 자라면 분하고 원통해서 당장에 한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한 입으로 집어 삼키려 할 것이다. 설령 몸이 죽고 목숨을 잃어 천생만겁에 이르더라도 그 생각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此事의 的實用工切處는 正如搭對相撲相似하여 纔有絲毫畏懼心과 纖塵差別心을 蘊于胸中이면 何止十撲九輸리요…中略…若是鐵眼銅睛인댄 憤憤悻悻하여 直要一拳打碎하며 一口吞却이리…下略.p30)”라고 분발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이외에도 두 번째 글 「示衆」에서 금강같은 칼로 한 줌의 실을 베듯 크게 분발심을 내어 모든 사랑분별과 知解와 言句와 佛法까지도 베어내면 이 일을 끝마칠 수

있음을 피력함하고 있다.(發大忿怒하며 奮金剛利刀하여 如斬一握絲에 一斬一切斷호대 一斷之後에 更不相續하면...p14)

마지막으로 大疑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법문을 기술해 보면,

“지금 그 약(丹)을 대중들에게 널리 보시하노니 그대들이 먹으려면 먼저 六情·六識과 四大·五蘊과 山下大地와 森羅萬象을 가져다 죄다 녹여 하나의 의심덩어리를 만들어서 몰록 눈앞에 놔두면 鎗하나 旗하나 쓰지 않아도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 마치 淸平世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닐 적에도 의심뿐이고 앉았을 적에도 의심뿐이고 ... (중략)... 마치 물살을 탄 배를 띄우는 것 같아서 전혀 힘들이지 않게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힘을 얻는 시절이니라.”

(今將此丹 하여 普施大衆하노니 汝等服之인댄 先將六情·六識과 四大·五蘊과 ...中略... 惚鎔作一箇疑團하여 頓在目前하면 不假一鎗一旗라도 靜悄悄地一便似箇淸平世界하리라. p16)

또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만 참 의심이 생겨 당장 번뇌와 혼침과 산란이 제거되어 틀림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스물네째 글 「示衆」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若論此事인댄 只要當人이 的有切心이니 纔有絶心이면 眞疑便起리라 眞疑起時에 不屬漸次하면 直下便能塵勞頓息하고 昏散이 屏除하여 一念不生하고 ...中略... 眞疑不起인댄 饒你坐破蒲團百千萬箇라도 依舊日午打三更이니라.p57)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三要는 학인의 實參에 있어서 그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 마치 다리부러진 솔이 마침내 몸쓸 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譬如折足之鼎이 終成廢器니라.p42) 이 三要가 한데 어우러져야 제대로 공부를 지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중에서 “의심

은 믿음으로써 바탕을 삼고 깨달음은 의심으로써 작용을 삼는 줄 알아야 하나니, 믿음이 十分이 있으면 의심이 十分이 되고 의심이 十分이면 깨달음이 十分이 된다.(須知疑는 以信爲體하고 悟는 以疑爲用이니라 信有十分이면 ...下略. p33)

또한 "당장에 큰 신심을 내고 큰 의심을 일으켜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가서 한 생각이 만년이, 만년이 한 생각이 되어 분명하게 이 一法의 落處를 보려면, 마치 어떤 사람과 생사의 원수를 맺은 것과 같이 해야 한다. 마음에 분한 생각을 내어 그와 一刀兩斷을 하고자 하여 잠간도 쉼이 없이 모두 맹렬하고 날카롭게 채찍질하는 시절이 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정진에 정진을 더하여 다녀도 다니는 줄 모르고 동서남북도 분간하지 못하여 한 법도 생각에 마주칠 것이 없는 것이 마치 구멍 없는 무쇠방망이 같아서 의심을 일으키는 주관과 의심의 대상인 화두와 그리고 속마음과 바깥경계가 동시에 잊어지고 동시에 없어져 없다는 것이 없어진 그것까지 또한 없어지게 해야 한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발을 들거나 발을 내리 던는데 큰 바다를 밟아 뒤치거나 須彌山을 차서 쓰러뜨리려 하지 말고 꾸부리고 돌아보고 내려다보고 우려를 때 달마의 눈동자를 대질러 멀게 하고 석가의 콧구멍을 부딪혀 몽그러지도록 꿰뚫어 비쳐볼지어다.”(直欲發大信 起大疑하여 疑來疑去에 一念萬年이며 ... 中略 ... 如與人으로 結了生死冤讎相似하여 心憤憤地 卽欲便與一刀兩段하여 ... 中略 ... 能疑所疑와 內心外境이 雙忘雙泯하여 無無亦無니 ... 下略 ... <p34~35 「示直翁居士」 >) 이렇듯이 三要中 하나도 결여되지 않은 수행방법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十病의 내용을 또한 <禪要> 안에서 발췌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莫是宿無靈骨麼아”

이러한 無善根의 내용은 스무번째 글 「시중」 에
도 보이고 있는데 “어떤 무리들은 10년 20년이
되도록 공부를 하였으되 깨달은 것이 없는 것은
그가 전생에 선근이 없기 때문에 뜻이 견고하지
않고 받은 믿고 받은 의심하여 … 中略 … 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생소해져서 24시간 중에 한
시간도 선정에 들어 일념을 이루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更有一等漢子 成十年二十年^{토록} 用工^{호대} 不曾有
箇入處者는 只爲他 宿無靈骨^{하야} 志不堅固^{하고} 半
信半疑^{하며} … 中略 … 難有一箇時辰^{이라도} 把捉得
定^{하야} 打成一片^{하나니} <p48~49>)

둘째 “莫是不遇明師麼아”

눈밝은 스승을 만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 이래 역대
조사 스님들 대부분이 훌륭한 선지식 밑에서 도
를 이루었으며 그 예는 이 「禪要」를 설하신 高
峰和尚도 해당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열 일곱째 글 「示李通上人」의 첫 머리에
서 밝힌 것처럼 “學人이 당초에 本分宗師를 만나
지 못하여 몇 십년동안 여기저기서 참구하고 배
웠으나 끝내 도를 이루지 못하고 쓰레기들로만
배를 채우는 꼴을 당하는 불우한 경우가 수다하
였으니 이는 또한 전생의 선근이 부족한 탓이기
도 하겠다.(大抵學人이 打頭不遇本分作家^{하야} 十年
二十年을 者邊那邊에 或叅或學^{하며} … 中略 … 正如
箇臭糟瓶相似^{하니})

셋째 “莫是一曝十寒麼아”

이러한 병통을 경계한 내용으로는 스물두번째 줄
「示衆」에도 잘 나타나 있다. “기한전에 증득하
는 법을 말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눈(雪)을 저
다가 우물을 메우는 것과 같아서 춥고 더움을 꺼
리지 않고 밤낮을 분간하지 않고 가로로도 지고

세로로도 지고 옳게도 지고 그르게도 저서 오면
서도 지고 가면서도 저서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
어 만겁 천생에 이르더라도 한 생각도 싫어하거
나 여의려는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해태한 마
음이 없으니”(若論剋期取證^{인댄} 如人이 擔雪填井^{하야}
不憚寒暑^{하며} 不分晝夜^{하고} 橫也擔 … 下略)

또한 “만일 이 일을 말하자면 만길이나 되는 깊
은 못에 돌멩이를 하나 던진 것과 같아서 위에서
밑바닥 까지 꿰뚫어 실 끝만치도 간격이 없는 것
과 같이 해야 한다.”(若論此事^{인댄} 如萬丈深潭에
投一塊石相似^{하야} 透頂透底에 了無絲毫間隔^{이니라}
<p54~56>)

넷째, “莫是根劣志微微아”

이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大根機와 강한 意志가
필요함을 중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만일 쇠로
금을 이루듯이 성인들과 같은 경지가 되려면 어
찌 얕은 지식과 좁은 소견을 가진 이들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솔을 들고 산을 빼내는
힘과 천지를 包括하는 아량과 못을 끊고 쇠를 끊
는 근기와 鳳을 때려잡고 용을 그물질하는 솜씨
를 갖춘이”라야 능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若要點鐵成金^{하야} 與千聖同域^{인댄}
豈淺識小見者의 所能擬議^{리요} … 中略 … 斬釘截鐵
機와 打鳳羅龍手^{니라} <p43>)

다섯째 “莫是汨沒塵勞麼아”

이는 散亂心과 외부 경계에 빠져들음을 경책하는
것이며, 화두 일념이 “輕微하며 뜻이 猛利치 못
하야 조는 개처럼 멍하거나 도깨비처럼 산란하여
오늘도 그러저럭 내일도 그러저럭 지낸다면 결국
에는 늦게 배우는 이나 처음 출가한 이들에게 존
경심을 내지 않게 할 것이며, 이런 놈이 高峰의
門下에 들어온다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두
때려 죽인들 무슨 죄가 되랴” 하면서 번뇌망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若是此念이 輕微하며 志不猛利하여 毳毳毳毳 魍魎魍魎하여 今日也恁麼하며 明日也恁麼인댄 … 中略 … 打殺萬萬千千인달 有甚麼罪過리요<p15>)

따라서 이 공부는 일체의 선악의 개념도 버려야 (p24)하며 또한 思量, 計較, 分別로써는 해결할 수 없음(p13)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섯째 “莫是沈空滯寂麼아”

다음으로 高峰和尚은 空寂한 곳(無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스물여덟째 글 「通仰山老和尚疑嗣書」 中에 高峰和尚이 仰山老和尚을 모시고 千寧으로 가는 도중에 仰山스님이 詰問하는 문답에 잘 나타나 있다. “날마다 복잡할 때에도 주재가 되느냐?” “주재가 됩니다” 하다가는 “잠이 폭 들어 꿈도 생각도 없고 보는 것도 없을 적에는 너의 주인공이 어디 있는가?”에 대답이 딱 막혀버린다.(因被詰問하사오니 日間浩浩時에 還作得主麼아 答云作得主호이다 … 中略 … 又問正睡着時에 無夢無想하며 無見無聞커니 主在甚麼處호야는 … 下略 …<p67>) 여기에서 보면 無記空에 빠지지 않고 語墨動靜을 넘어 夢中一如와 宿眠一如에도 항상 주인공이 현현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일곱째 “莫是雜毒入心麼아”

이는 샷된 마음을 경계하는 글로써, 공부가 순일하게 이뤄지나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8만4천 마구니들이 그대들 6근(六根)의 문턱에서 엿보고 있으면서 온갖 기이하고 수승하고 선하고 악한 응험의 일들을 그대들 마음에 따라 베풀며 (中略) 그대들이 문득 털끝 만치라도 차별심과 허망한 생각을 내려하면 문득 마구니의 함정에 떨어질 것이며 (中略) 이러한 온갖 마구니의 경계가 모두 자기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며 자기 마음에서 생긴 것이니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

면 그가 어찌라.”(有八萬四千魔軍이 在汝六根門頭하여 伺候所有一體奇異殊勝善惡應驗之事하여 隨汝心設하며 … 中略 … 當知此諸魔境이 皆從自心所起며 自心所生이라 心若不起면 爭如之何리요<p17~18>)

여덟째 “莫是時節未至麼아”

이 병통은 공부가 아직 미숙하여 깨달음의 인연을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도 설산 6년 고행을 하셨으며 달마대사도 9년 面壁을 하셨으며 임제스님이 황벽스님에게 60榜을 맞고 대우스님에게 가서 깨달은 것도 다 시절 인연을 기다려 공부가 익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p51~52)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절 인연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였기 때문에 證果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아홉째 “莫是不疑言句麼아”

이는 話頭를 들 때 言句의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話頭를 염하거나 혹은 做作話頭(얼마간 의심하다가 곧 의심이 사라짐)를 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목조선의 無記空에 빠진 상태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화두의단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思量, 分別, 計較하여 知解로써 화두를 타파하려는 폐단을 꼬집은 글이다.

열째 “莫是未得謂得하며 未證謂證麼아”

마지막으로 얻지 못하고서 얻었다하고 증득하지 못하고서 증득했다고 하는 것은 大妄語를 저지르는 것으로 옛 부터 선지식들이 크게 경계하였던 병통이다. 이는 수행자가 究竟覺까지 이르지 못했으면서 선지식의 점검도 받지 않은 채 스스로 오만심이 생기거나 샷된 마음이 생겨서는 道人行세를 하거나 혹은 「禪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가의 본뜻을 망각하고 샷됨과 악을 쫓고 함부

로 佛祖의 機緣과 古人들의 公安을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穿鑿하는 것으로써 전해주며, 계율을 지키지 않고 인과를 부인하며 너와 나를 다투는 소견만 더욱 늘고 三毒만 더욱 치성하니 이러한 무리들은 마군과 외도에 떨어져서 그들의 권속이 될 것이다.”(往往學道之士가 忘却出家本志하고 一向隨邪遂惡하여 不求正悟하고 … 中略 … 三毒이 倍加熾盛하나니 如斯之輩는 不免墮於魔外하여 永作他家眷屬이니라<p26>)

以上으로 三要와 十病을 통하여 본 禪의 要指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물론 위의 보고서는 선의 요지를 온전히 드러낸 글이 아니며 다만 「禪要」에 등장하는 三要와 十病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주로 祖師禪(話頭禪) 수행에 있어서 요지를 발췌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高峰和尚의 「禪要」가 다른 수행체계에 접목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병치될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수행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高峰和尚도 말했지만 간절함이다. 一切皆苦의 衆生界에서 解脫하려는 간절함만이 涅槃寂靜으로 들어서게 할 것이며, 그러한 간절한 구도열리 있을 때에는 여러 선지식들이 검증한 어떠한 수행 방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一大事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면서 사사로운 견해는 최대한 줄이고 대부분 「禪要」의 내용에 의거하여 이 보고서를 기술해 나가도록 노력하였음을 밝히며 서툰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피할 수 없는 업력

편집부

석가족을 멸망시키고자 세 차례나 쳐들어오는 코살라국의 유리왕을 막았던 부처님께서는 네 번째 정벌에 나선 군대를 막지 않으셨다.

이것을 알게 된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의神通력으로 유리왕과 그 군사를 다른 세계로 던져버릴 수 있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석가족의 전생 인연까지도 다른 세계로 던져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나이다.”

“목련이여, 자리에 돌아가 앉아라.”

“카필라성을 저 허공에다 옮겨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가족의 전생 인연도 허공에 옮겨 놓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나이다.”

“허락하신다면 카필라성을 쇠그물로 덮겠나이다.”

“전생의 인연까지도 쇠그물로 덮을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할 수는 없나이다.”

“그대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 앉아라.

석가족의 전생 인연이 무르익어 이제는 과보를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설사 저 허공을 땅으로 만들고
땅을 허공으로 만들 수 있다해도
이미 뿌려놓은 인연의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나니
인연이 무르익는 날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하리.

증일아함경 제 26;등견품2;<2-691중>

願을 발하다

보월寶月 / 대교

부와 명예가 함께 갖추어지던 4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돈과 지위가 보장되는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세속생활이었다.

그러던 중 원인 규명이 되지 않는 병마가 다가오고 두 번의 수술, 두 번의 의사오진 사고 그리고 세 번째 정확한 병의 진단 후 수술과 치료가 6개월 이어졌다. 치료과정에서 끊임없이 오는 생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지금 상황에서 생을 마쳐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본인에게 내리던 삶의 포기 순간들, 그 때마다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 또 한 보살의 희생정신 속에서 다시 일어서면서 살아야겠다는 의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제까지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 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던 순간들...

그렇지만 병마의 고통은 이러한 희망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시험하고 있었다. 치료 도중 우연히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인연으로 불교와 연을 맺게 된다. 경전을 처음 대하던 순간 눈물의 연속이었다. 육체의 끝없는 고통 속에서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은 마치 자석이 쇠가루를 당기듯이 불법(佛法)이라는 바다로 나를 끌고 가고 있었다. 그 후로 고통이 반감되는 경험, 밖에서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하였는데 암자에서 요양 도중 공양을 거부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경험, 아버지 같은 인지하신 은사스님과 만남, 이렇게 해서 출가의 마음은 싹트고 있었다.

제가 출가한 암자는 지금도 등짐으로 1시간 30분정도 저 올라야만 생활할 수 있는 절이다. 6개월 동안의 암자 행자생활은 은사스님과 매일 등짐을 저 올리는 날들이었다. 너무 감사함 그 자체였다.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살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절에 필요한 것을 나의 등을 빌려서 올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생명에 대한 감사함, 경이로움...

등에 짐을 지고 한 ...지장보살, 발...지장보살 절에까지 오르던 시간들. 달밤에 은사스님과 산을 오를 때 초발심의 한 구절 '慈悲布施 是法王子'라는 구절을 듣고 눈물 흘렸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법주사에서 3개월의 행자시절 나의 아팠던 과거를 원주스님과 행자도반에게 철저히 숨기었던 일. 한 겨울 손이 펴지지 않는 후유증 때문에 물바가지로 두 손목으로 들어올리고 밥숟갈은 갓난아이처럼 움켜쥐고 공양하던 모습.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겹다.

그렇게 행자생활이 끝나고 이렇게 출가해서 계를 받고 공부하러 갈 곳은 내가 승보의 일원이 됐는데 송광사로 공부하러 가지하고 은사스님께 말씀드렸고, 은사스님이 차에 나를 태우시고는 손수 운전하셔서 이곳 송광사에 같이 와서 강원에 방부를 드렸다 환희로운 치문반 시절이었고, 이렇게 살아서 출세간의 법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무엇인가 삼보 속에서 또 여기까지 오게 한 소중한 인연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생명보시발원을 세웠다.

4년의 강원생활에서 1년에 한 명씩 4명의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치문반 때 도반 스님들의 보시금으로 시작해서 대교반 봄산철 때까지 심장병 수술지원을 계속했다. 치문반 시절 삼월불사 때 공양간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보시한 보국스님, 선방스님들, 강사스님의 지금까지의 보시, 그리고 방학 때 송광사에 남아서 철야기도 며칠하고 기도 회향 보시금 전액 보시한 범하스님, 몇 개월의 용돈모아 보시한 도반 스님, 한 사람분의 결연금을 내면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강원 이름으로 보시한 도반스님, 속가 반연되는 분들의 계속되는 후원금으로 지금까지 20명의 환자에게 지원해서 17명이 새 생명을 얻었고 3명은 수술 준비 중이다.

절집에 좋은 일에 마구니가 많다고 했다. 크고 작은 장애가 있었지만 한 생명 한 생명 태어날 때마다 모든 것을 극복 할 수 있었다. 지금 송광사 강원 이름으로 심장병 후원이 끊긴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강원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군가 한 스님의 생명보시 발원한다면 그 결과는 지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부처로 가는 기운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보시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통 받는 병고중생을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보사회향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상좌로 받아주신 은사스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대교반을 졸업할 수 있게끔 도와준 도반 스님들, 심장병 도움주신 분들 개개인 모두 원대한 원력을 세워서 깨달음의 길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중생에게 보사회향 하소서.

성불 하십시오

보월 합장

그동안 송광사 강원에서 결연하여 수술을 마친 환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지수님. 허윤정님. 김수연님. 신인섭님. 안쌍님님. 김태성님. 안옥저님. 문성현님
이조은님. 이강민님. 지화순님. 변정훈님. 서성빈님. 최민규님. 신한솔님. 김찬비님
이진수님. 김지혜님. 이민지님. 김동성님. 이상 총20분입니다.

강원소식

뒷표지 사진



一心으로
합장하며 부처님의 마음 닦아
뉘기를 발원합니다
-임오년 하안거 결제 송광사 대중-

편집후기

어눌하고 순박한 것이 스님답다.
이 어눌한 편집을 마치고 다음 좋은 인연을 기다린다.
벌써 해진스님은 미운 정이 든단다.
정혜사지여 항상 각성하라! 인호스님의 맑은 눈이 반짝인다.
나이보다 한 10년은 마음이 젊은 대정스님. 모두 고맙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송광사 율원장스님. 무각사. 법혜행(장학금). 한성법행(장학금). 김현정. 광미숙. 조영숙. 류인석. 이영숙. 문명숙. 안정희. 신증녀. 김갑숙. 김명희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율주스님. 율원장스님. 수덕사주지스님. 여적암주지스님. 도갑사주지스님. 원주스님. 무각사주지스님. 증심사주지스님. 달마사주지스님. 월암스님. 호국천마사. 익산 관음사주지스님. 한국제다. 광양강원후원회. 최혜륜. 요정수. 윤선화. 박보인성. 불이목재. 상석모친

대중공양 하셨습니다

혜진스님. 보경스님. 부산 문수사주지스님. 금탑사선원. 연등국제선원. 광주강원후원회. 조계사신도회. 부산관음사신도회. 마산불일회. 열란마음법우회. 비로혜. 서하나. 박재희. 진연화. 양혜원. 양진환. 정법화. 장영식. 정상덕행. 이선덕화. 정행선. 김대자월. 김여여월. 조은정. 법혜상가족. 희문스님과 LMB. 홍수월화가족

정수기 도와주셨습니다

순천강원후원회. 유식학인회. 광주송원회. 광양후원회. 마산창원후원회. 조만옥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꽃꽂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박채균

연락처: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편번호 540-930) 송광사 강원 우성스님 061)755-5302

강의(특강) 테잎 보급

송광사에서는 특별 강의 테잎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카세트 테잎

- 지운스님 · 법화경 1~2 33개 | 48,000원
- 정연스님 · 인도철학 18개 | 25,000원
- 용운스님 · 차茶 이야기 17개 | 25,000원
- 정화스님 · 유식 30송 11개(교재포함) | 25,000원
- 정화스님 · 중론中論 23개 | 30,000원
- 혜거스님 · 도덕경 16개(교재포함) | 23,000원
- 고우스님 · 선요禪要 25개 | 30,000원

비디오 테잎

- 지운스님 · 영성의 불교적 이해 1개 | 7,000원
- 진옥스님 · 설법하는 법 1~4 4개 | 30,000원

구입처: 송광사 강원 서기 ☎061)755-5302(전화주문도 받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500660-01-000289 송광사 서기

테잎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임오년 하안거 결제 송광사 대중